24일 Market Index
코스피 5006.03 (+297.49)
코스닥 665.88 (+30.43)
금리(국고채 3년) 3.640 (+0.017)
환율(원·달러) 1342.4 (-3.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삼전닉스 메모리 공급확대 '청신호'… 美 수출통제 '변수'

젠슨 황, 11일 만에 복귀

안보위험 없다 판단, 트럼프가 지시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 확충 계획에
삼전닉스, HBM4 공급확대 등 추진
中공장 미국산 수출통제 적용 유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불안은 줄었지만 중국 공장 투자에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중국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 반입 허가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24일 이사회가 황 CEO의 경영 복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CEO가 사임한 지 11일 만이다. 이사회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황 CEO의 복귀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사회 설득에 직접 나서는 등 황 CEO의 복귀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 중심의 경영체제를 회복한 엔비디아는 기존에 추진해 온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과 공급망 확충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회사는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장기 공급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지난 17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및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계약상 약정액은 3900억달러(약 524조원)로 직전 분기보다 1110억달러(약 149조원) 증가했다.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장기 메모리 공급계약 확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협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 CEO의 복귀로 엔비디아의 기존 조달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양사도 차세대 제품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공급 확대와 후속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확보는 첨단 패키지 기판 분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삼성전기와 기존 공급계약을 수정해 생산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만 킨서스와는 엔비디아 전용 기판 생산능력을 기존보다 3.5배 이상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 복귀로 삼성전기와의 기판 공급 협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세종·부산 생산거점에 대한 추가 투자 지원이 확정될 경우 협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엔비디아와의 공급 협력에 대한 기대와 달리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 투자는 미국의 수출통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황 CEO의 복귀를 지지하면서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연산능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등 7개 기업을 수출제한 명단에 올렸다.

이들 조치는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공급을 겨냥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규제와는 별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기존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장비 반입 허가를 연간 승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양사의 증설과 공정 전환에도 허가 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증설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며 내년도 장비 반입 역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매물 석달 새 2만건 급증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1932건으로, 지난 8월3일 6만409건보다 2만1523건(35.6%)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최근엔 중랑·노원 등에서 매물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말 대비 이달 24일 매물 증가율은 중랑구가 11.0%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8.0%), 동작구(7.9%), 성북구(7.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매물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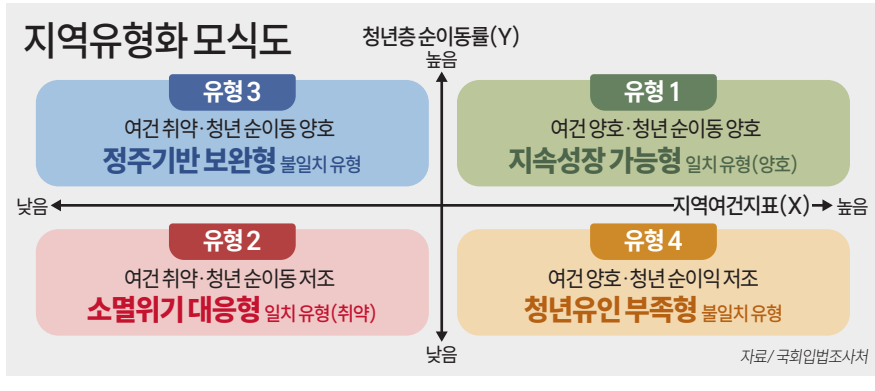
청년 유출·고분양가… 지방 미분양 는다

청년 수도권 거주비중 56% 달해
경북 3.3㎡당 분양가 시세의 2.3배
"시세-분양가 격차 좁히지 못하면
내년 미분양주택 해소 요원할 것"

지방 주택시장이 청년 유출과 고분양가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와 주택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시세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수요 기반이 약한 데다 가격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지역간 불평등 분석지표 개발 및 실증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국 청년인구(19~34세) 중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0년 47.9%에서 지난해 56.0%로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비중은 52.1%에서 44.0%로 낮아졌다.

수요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새 아파트의 가격 문턱도 높아졌다.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01만원으로 평균 시세 2173만원보다 28만원 높았다.



지난 2024년 15년 만에 나타난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 역전 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역별 격차는 더 컸다. 서울·경기·세종은 분양가와 시세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북과 전남·광주, 경남, 강원 등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두 배에 가까웠다. 경북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2만원으로 평균 시세(710만원)의 2.3배에 달했다. 전남·광주도 분양가가 1934만원으로 시세(902만원)의 2.1배로 조사됐다.

주변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사야 하는 만큼 신축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분양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는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을 팔고 옮기려는 실수요자가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부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 지역 내 갈아타기마저 위축돼 신규 분양시장 회복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분양가가 내려갈 여지도 크지 않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는 2021~2026년 매년 3~7%씩 올라 누적 상승률이 33%를 넘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

젠슨 황 컴백에 코스피 5000 탈환

글로벌 증시 '황의 마법'

코스피 6.32% 반등 5006.03 마감
삼성 6.70%, 하이닉스 6.73% ↑
엔비디아 주가 31% 오른 9500억 弗

"젠슨·젠슨·젠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3일(현지시간) 직원 수백 명의 환호 속에 복귀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짙은 남색 재킷 차림이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맙다. 두 번째엔 더 나은 CEO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불륜 스캔들로 물러난 지 11일 만의 복귀다.

주식시장에서는 '황의 마법'이 펼쳐졌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6.32% 반등한 5006.03에 마감했다. 장중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도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며, 향후 5분간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조치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6.70% 오른 18만94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6.73% 오른 115만8000원에 거래됐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증시 참여자들도 환호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91% 급등했고, 대만 가권 지수(+8.99%) 등도 반등에 성공했다. 황 CEO의 복귀 소식에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1.81%), 영국 FTSE 100(1.30%), 독일 DAX(2.15%) 등도 상승 마감했다.

황 CEO의 복귀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23일(현지시간) 31% 폭등한 165.05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새 약 9500억달러(약 1280조원) 불었다. 마이크론(19%), 샌디스크(10.7%), 인텔(16.3%) 등 주요 반도체주도 줄줄이 급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14%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끈 뉴욕증시도 급반등했다. 나스닥지수는 6.51% 오른 2만4089.56, S&P 500지수는 4.73% 오른 7237.17로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작년 4월 이후 하루 상승률이 가장 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합참 "북 아닌 러 군용기 수대 동해 KADIZ 진입…영공침범 없어"
▲한병도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으로 확대…고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사진 뉴시스
▲조정식 의장, 다카이치 日 총리와 회담…"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오세훈 "민심 전달하려 했는데…李대통령 의사봉 3번 내리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국 속 출국…싱가포르·일본 순방길
▲경찰, 김병기 '강선우 1억 묵인' 의혹 등 불구속 송치…수사 1년2개월만

메모리반도체 핵심 인재 중용… 부사장 39명 등 131명 승진

삼성그룹 정기 임원인사

로봇 등 기술 중심 경영체계 강화
삼성전자, 실적·수주성과 기반 인사
삼성전기, 임원 승진 지난해 두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뉴시스

삼성그룹 주요 전자 계열사가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기술 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승진 규모를 줄이면서도 반도체 핵심인재를 중용했으며 부품 계열사는 AI 서버용 부품과 차세대 OLED 사업을 이끌 기술인재를 발탁했다.

24일 삼성전자는 부사장 39명, 상무 78명, 펠로우(Fellow) 2명, 마스터(Master) 12명 등 총 131명을 승진시키는 2027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주의 인사…AI·로봇 인재 발탁

이번 인사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을 이끈 메모리반도체 인재 중용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의 개발 및 양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인재들이 대거 승진했다.

메모리사업부에서는 최신 D램 제품 개발을 주도한 D램설계1그룹 김명오 상무와 HBM4 개발 및 양산을 이끈 하경수 D램설계2그룹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에서도 고객사 확보와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 수주 확대를 이끈 송태중 부사장과 4·5나노 공정의 수율과 성능을 개선한 이호 부사장, 핵심 설계자산(IP) 개발을 주도한 류효겸 부사장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서는 미래사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 인공지능(AI)·로봇 분야 인수합병(M&A)과 투자를 담당한 마띠유 아포테커 부사장과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주도한 조익현 부사장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봇 사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인재도 발탁했다.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형승용 상무와 휴머노이드 보행 및 전신제어 기술을 개발한 구동한 상무가 신규 임원에 올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여성 승진자가 1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 이윤경 빅데이터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생활가전과 메모리사업부에서도 여성 신규 임원을 배출했다.

◆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주력 사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부품 사업 확대에 발맞춰 임원 승진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부사장 5명, 상무 8명, 마스터 2명 등 총 15명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패키지기판 등 주력 제품의 기술 차별화와 신규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부품 공급 확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사업 성장에 맞춰 회사는 지난 9월 6조7800억원 규모의 패키지기판 증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용 기판 공급 확대 및 MLCC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에 대응해 제품 개발과 양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 승진자는 부사장 5명, 상무 9명, 마스터 2명 등 총 16명이다.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는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공정 효율을 높인 송하정 BP기술팀장 겸 기술혁신팀장과 세계 최초 8.6세대 올 옥사이드(All Oxide) IT용 OLED 양산에 기여한 안기완 개발실장 겸 IT개발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규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재도 발탁했다. 차량용 OLED 패널 성능을 개선한 이성준 공정개발팀 부사장과 북미 주요 고객사의 폴더블 제품 양산에 기여한 최지훈 품질보증실 A품질팀장이 대표적이다. 최 팀장의 승진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이어 40대 부사장을 배출했다.

한편 삼성 주요 전자 계열사는 이번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석유 최고가격제, 단계적 출구전략 마련해야"

에너지경제硏 'K-석유안보' 현안 점검
"종료기준 사전에 공표해 혼란 줄여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열린 '호르무즈 사태, K-석유안보 정책 성과와 과제' 조찬포럼에서 국내 원유 수급 대응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혜온 기자

중동 전쟁 이후 정부의 석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상시화해 중동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최고가격제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호르무즈 사태, K-석유안보 정책 성과와 과제' 조찬포럼을 열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위기 대응 성과와 중장기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선방…다변화 지원 상시화해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 4~5월 한국의 원유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비축유 활용 위주로 대응한 일본(52%)보다 감소율이 30%포인트 낮았다.

국내 정유사의 다양한 유종 처리 역량과 정부의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 확대가 미국·남미 등 대체 원유 확보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비축유 스와프(누적 3200만배럴)와 정유사 비축 의무 완화(40일→20일)도 수급 안정에 기여하면서 정유사 가동률은 사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했다.

문제는 다변화의 지속 가능성이다. 통상 70% 수준이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지난 1~8월 62%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제설비 특성과 운송비 측면에서 중동산 원유의 경제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 없이는 기존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망 위기 시 비축유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평상시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정유사가 장기 조달·설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운임 차액 보전 현실화와 지원 요건 완화 등 다변화 지원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배분 개선도 주문했다. 내년 출범 예정인 자원안보기금 예산 약 2조4000억원 중 석유 공급망 투자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석유 수입부과금이 본래 목적인 수급·가격 안정에 쓰이는지 점검하고 공급망 투자와 에너지 전환 재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은 높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으로 규정했다. 정제설비 개선과 원유 혼합·정제 기술 연구개발(R&D),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 기본계획상 오는 2035년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50% 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고가격제, 가격 안정 성과에도 시장 왜곡… 유통시장 부작용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와 착한주유소 제도를 병행해 왔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9월 국내 휘발유·경유 세전 공급가격은 국제 제품가격을 한 차례도 웃돌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억제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이 약화했다"며 "4~9월 국내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는 데 그쳐 연방정부 차원의 가격 개입이 없었던 미국(2.5%)보다 감소폭이 작았다"고 지적했다.

유통시장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내 연료용 석유제품의 절반 이상이 대리점을 거치는 가운데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저가 현물 공급 차질로 대리점의 유통 비용 부담과 영세주유소의 물량 확보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오피넷 가격 미보고로 일시 영업 중단이 추정된 주유소는 59곳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쟁 이전 일반 주유소보다 *l* 당 약 50원 저렴했던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하면서 기존 유통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부연구위원은 "정책 장기화에 따른 비용 누적과 일시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외 시장 동향을 반영한 종료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정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막는다

전용 시험장 확대·감독관 보디캠 의무화
노동부, 신뢰성·공정성 회복 역량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별 고사·내신 및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국가자격시험만을 전담하는 시험장이 늘어나고 각 시험장 감독관은 부착식 카메라(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시험 전·중·후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강화가 골자다. 당국은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앱을 활용해 부정행위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매 과목 시험 시작 전 무작위로 수험생에 전화를 걸어 전원이 차단됐는지 재확인한다.

지난 21일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즉각 적용한 결과 태블릿PC·스마트워치 소지, 휴대전화 전원 미차단 등 총 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후 적발을 위해 전용 시험장을 확대하고, 임차 시험장에는 이동형 폐쇄회로(CC)TV와 감독관 보디캠을 도입해 시험 현장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한다.

또 스마트기기 전담 감독관을 확대 배치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전문 인력풀로 관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은 물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비선형접합탐지기 등 추가 적발 수단도 확보한다.

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기술자격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형사처벌 역시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세무사·노무사 시험과 같은 전문자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만든다.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노동부는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연다. 산업인력공단의 전담 연구 기능을 강화해 협의회에서 적발 사례와 탐지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시대에 맞춰 국가자격제도 전반도 손본다. AI 시대에 걸맞게 실기형·면접형 등 시험 방식을 다양화하고, 불필요한 자격은 과감하게 정비한다. 현장 경력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자격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고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원칙을 내걸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전담반)'를 통해 연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젠슨 황에 요동친 세계 증시… AI 랠리의 '불안한 민낯'

엔비디아 시총 하루새 1조弗 육박
서학개미 안도에 공매도 세력 비명
시장 환호에도 지배구조 비판 여전
빅테크 설비투자 축소 가능성 제기
경쟁사 추격에 수출통제까지 부담
전문가들 "본격적인 회복은 일러"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솔직히 시장이 한 사람에게 이토록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에디슨 비지카 크리덴트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 23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황의 복귀는 주식시장을 구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의 복귀는 여러 면에서 좋지 않다."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23일 칼럼)

월가는 허를 찔렸다. 투매장 이후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며 일요일 밤 5시간 동안 화상 회의를 했던 비지카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며 월요일 개장 불과 몇 분 전 들려온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복귀 소식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 23일(현지시간) 뉴욕·유럽 증시가 급등했다. 24일에는 코스피·닛케이225 등 아시아 증시가 '황의 마법'에 급등했다.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시간으로 23일 오전 9시 중국 스파이 의심 인물과의 스캔들로 11일간 물러나 있던 '인공지능(AI) 대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AI 인프라 구축 관련주에 대한 월가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황 CEO의 등판이 AI 버블 논란에 빠진 전 세계 증시를 단번에 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증시 '엔비디아 랠리'

황 CEO의 복귀를 두고 월가의 판단은 명확했다. AI에 의존하는 현재의 주식시장에서는 한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31.48% 오른 165.05달러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이 약 9500억달러(약 1280조원) 불어나며 역사상 최대 일일 시총 증가 기록을 세웠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6.5% 올랐고, S&P500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안도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황 CEO를 둘러싼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엔비디아 주식 7억54만달러(약 94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보관금액은 106억5801만달러(20일 기준)다. 같은 기간 미국 반도체지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SOXL은 19억2167만달러(약 2조5880억원)어치가 순매수돼 1위에 올랐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환호성이 터졌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6.32% 오른 5006.03에 마감하며 단숨에 '5천피'(코스피지수 5000)에 올라섰다. 일본 기술주 중심의 닛케이225지수는 3.91% 오른 58644.63에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도 2.47% 올랐다. 일본의 대표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8.99% 폭등한 40122.35에 마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가격 제한 폭인 10% 급등해 2230대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엔비디아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3배를 좇는 상품을 사들인 개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3배로 베팅하는 영국 상장 인버스 레버리지 ETF 두 종목은 미국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약 92% 폭락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도 경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리면 이익, 오르면 손실이 난다. 금융데이터업체 오르텍스에 따르면, 이날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의 평가 손실은 약 122억달러(약 16조원)다. 장중 주가 168.5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오르텍스가 집계한 2019년 이후 하루 손실로는 가장 크다.

◆"변수 여전·회복엔 시간"

WSJ는 이날 '젠슨은 돌아왔다. 그러나 AI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엔비디아 이사회의 그림자 의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황이 사실상 해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엔비디아의 이사회와 기업 행동 강령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WSJ는 황 CEO가 엔비디아 고객사 관계자 및 회사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복귀한 것은 기업 윤리와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이후 황의 복귀가 결정되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한 경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금조달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의 절반 이상은 향후 6개월 안에 빅테크 기업 중 한 곳이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가 미국 AI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환금융' 역할을 할 순 있겠지만 외부 투자자들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계속 투자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AMD와 브로드컴, 알파벳, 심지어 아마존과도 경쟁을 벌이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이 엔비디아와 황 CEO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세다. 'CEO들의 조언자'로 알려진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교수는 엔비디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의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글로벌 증시가 다시 타오를 것인가.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이 완화됐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조언한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밝혔다. 문준호·정승호 삼성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엔비디아 회계 관련 조사 역시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반도체株 다시 달릴까… 외국인 수급·AI 투자 지속성 관건

美 반도체 PBR 6월 대비 53% 하락
삼전닉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자금조달 부담에 고점 회복 신중론

"자고 일어나니 젠슨 황이 복귀했다길래 계좌를 열어봤더니 미장은 꽤 회복했더라고요. 국장은 기대만큼 안 올랐지만 본전까지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인 한모씨(41)는 엔비디아의 급반등에 손실 회복 기대를 내비쳤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매수세가 번졌지만, 반도체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론과 함께 메모리 가격과 AI 투자 여건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4.6배로 나타났다. 지난 6월 9.7배보다 53% 낮다. 반면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2.7%에서 37.2%로 상승했다. 수익성 전망이 높아지는 동안 주가에 반영된 평가 수준은 낮아진 것이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은 경영진 공백의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 반등은 할인 요인의 제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하락기와 달리 이번에는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며 "10월과 11월의 주가 급락은 수요 둔화가 아니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12.9%, 18.9% 높아졌다. 이 연구원은 리더십 공백과 공급·투자 약정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주가 할인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장밋빛 이익전망이 곧 반등의 공식은 아니다.

이 연구원은 "관건은 외국인이다"라면서 "외국인 반도체 매도세가 진정되고 AI 투자가 유지된다면 메모리 대형주를 시작으로 AI 서버용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력기기 등으로 반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치려면 AI 투자 재원과 수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황 CEO의 복귀가 엔비디아의 자본 공급 의지에 대한 우려를 줄였지만, 산업 전체에 필요한 자본의 공급 능력을 개선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황 연구원은 주가지수가 단기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이번 급등에 숏커버 성격이 짙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시장만큼 신용시장이 낙관적이지 않았다며, 추세 상승을 위해 신용시장 정상화와 AI 설비투자 축소 우려 해소, 수익화 가속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엔비디아 이사회의 독립조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처리 조사, 다음 달 초 의회 조사도 복병이다. 대중국 수출통제와 미국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 내년 빅테크의 설비투자 방향 역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붕괴 우려는 완화되겠으나 반도체주가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환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방보다 상방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李 대통령 "주주 중심으로 증시 재편"… 자본시장 개혁 속도 주문

대주주 경영권 남용·기업 저평가 지적
주식시장 급변동에 대응책 마련 주문
개혁 TF에 민간 전문가 영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주식시장이 주주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금융당국에 자본시장 개혁에 강도와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주식시장의 급변동이 계속되는 데 대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가가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 폭등하고, 널뛰기 같다.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널뛰지 않느냐"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주주 중심 재편을 언급하며 "물론 경영진도 주주다. 그런데 대개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수의 대주주가 너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주주 이익에 반하거나, 이런 일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 현황 등을 점검하며 "경영진도 주주고, 대주주도 주주지만, 시장에 공개된 회사의 경우 대개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소수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주주 이익에 반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너무 낮은데도 그걸 방치하는 걸 넘어 조장하는 행위는 진짜 문제 아니냐"라고 짚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지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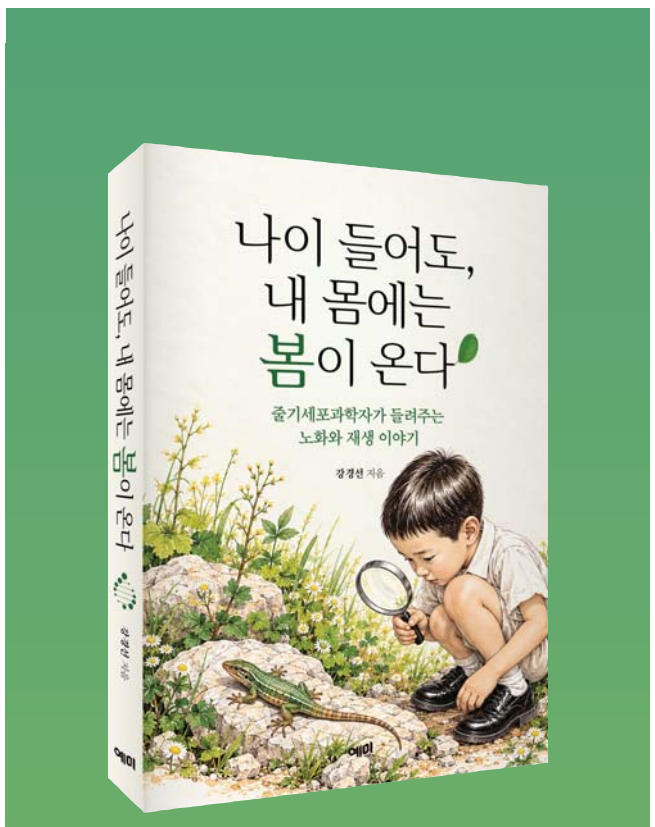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 때까진 추격하는 나라였다면 이제 선도하는 나라로 우리가 위상을 바꾸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대들이 커지고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혁에 속도를 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제도 개선 과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TF 책임자에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좀 챙겨봐 달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줄기세포 체력 지켜야 120세 건강수명 시대 연다”



나이 들어도, 내 몸에는 봄이 온다
강경선 지음/예미



강경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11일 ‘나이 들어도, 내 몸에는 봄이 온다’를 출간하고 인터뷰를 가졌다. 강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상처가 더디게 아물며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단순한 세월의 탓으로 돌려온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최규춘 기자

속깊은 人터뷰

강경선 서울대 수의과 교수

어느 날, 소년은 개울가에서 놀다 도마뱀을 마주쳤다. 우연히 잡은 도마뱀은 스스로 꼬리를 툭 끊어냈다. 그리고 얼마 뒤, 꼬리가 잘린 그 자리에서 다시 파릇하게 새 꼬리가 자라났다. 소년은 전율했다. 근육과 뼈, 신경과 혈관을 스스로 재생하던 도마뱀의 경이로운 모습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 ‘인간도 되살아나는 몸이 될 순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30년간 줄기세포 연구의 외길을 걸어 온 과학자, 강경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역노화(Reverse Aging)’의 해법을 들고 대중 앞에 섰다. 2028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펴낸 첫 저서 ‘나이 들어도 내 몸에는 봄이 온다’를 통해 그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노화와 재생의학의 비밀을 풀어놓았다.

강 교수는 “노화는 재생 능력이 약해지는 지점에서 본격 시작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사람도 도마뱀의 꼬리처럼 ‘재생의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재생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보수하고 새로운 세포를 공급하는 핵심 자원이다. 젊을수록 이 자원은 풍부하고 반응도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활력을 잃어간다. 강 교수는 줄기세포의 체력을 깨우는 ‘스템핏(StemFit)’을 통해 노화를 전략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강 교수를 만나 노화와 재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80세에도 스스로 일어나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식사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며 “줄기세포의 숫자와 기능을 지키는 스템핏을 통해 120세 건강수명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나.

“올해로 교수로 재직한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논문을 300편 썼다. 30년 동안 거의 매달 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작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었다.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연구해 온 줄기세포와 노화의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인간의 노화는 왜 일어날까’, ‘나이가 들면 왜 피부 상처조차 잘 아물지 않을까’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줄기세포 관점의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다.”

- 줄기세포 관점에서 본 인간 수명은 몇 살인가.

“줄기세포가 바라본 인간의 수명은 최대 120세다. 120년, 줄기세포가 인체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미국·유럽 장수연구소와 함께 0세부터 10대, 30~70대까지 연령별 인간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수와 기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의 숫자가 급감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기능도 현저히 떨어졌다. 75세까지의 데이터를 추세선으로 연결해 줄기세포가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120세’가 나왔다. 줄기세포 관점에서 인간 생물학적 수명 처음 규명한 셈이다. 최근 학술지 ‘이처’에도 노인 명에게 줄기세를 투여했더니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신체 기능이 개선됐다는 뉴스가 실릴 만큼, 줄기세포와 노화의 연관성은 명확하다.”

퇴임 앞두고 첫 저서… 역노화 해법 담아
세포 리프로그래밍·오가노이드 등
전 세계적으로 역노화 기술 개발 ‘활발’
줄기세포 체력 남아야 ‘연명’ 아닌 ‘연장’

국감서 ‘첨생법’ 등 논의… 현실화 단계
운동으로 근육 키우듯 줄기세포도 ‘스템핏’

일상서 염증수치 낮추는 생활습관 중요
근육·단백질·혈당·내장지방 등 관리해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역노화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세포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을 비롯,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를 통한 장기 교체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하지만 강경선 교수는 이러한 모든 방식도 결국 ‘줄기세포 체력’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를 바꾸면 수명은 늘 수 있지만 줄기세포 체력이 남아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커진다. 줄기세포가 고갈되면 장기 교체는 ‘연장’이 아니라 ‘연명’으로 기울기 쉽다는 것이다.

- 역노화 치료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나.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가 피부, 면역력 등 전신 항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으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선과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정부 주도의 첨생법 테두리 안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고, 국내 기업들에서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면 지정 병원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빠르면 2년 안에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역노화 줄기세포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스템핏(StemFit)’ 개념이 흥미롭다.

“장기를 바꿨다고 몸이 다시 젊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 부품을 달아도, 그 부품을 굴리는 엔진과 배선이 이미 낡아 있다면 오래 못 간다. 장기 이식도 결국 내 몸이 새 장기를 받아들이고(면역), 연결하고(혈관), 적응시키고(조직 재구성), 유지(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 체력이 깊게 관여한다. 나이가 들면 이 줄기세포가 약해지는데, 평소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줄기세포의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스템핏’이다. 20여 년 전부터 이 개념을 주창했고, 아시아계 연구자로는 유일하게 독일 등 유럽 10개국 컨소시엄의 ‘호라이즌(Horizon)’ 스템핏 항노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줄기세포가 스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체력을 길러주다(StemFit)가, 나이가 들어 그마저도 부족해지면 외부에서 건강한 줄기세포를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역노화 전략이다.”

강경선 교수는 현재 자신이 창업한 강스템바이오텍의 최고과학책임자(CSO)를 맡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오가며 다양한 역노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골관절염 치료제, 오가노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장기 이식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이종장기를 활용한 기성품(Off-the-shelf) 인공장기 개발에 나선 상태다.

-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해 달라.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기성품(Off-the-shelf) 인공장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개발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그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아 실제 인체 장기를 대체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충북대 수의대, 옵티팜 등과 함께 ‘이종장기 탈세포·재세포화’ 기술을 완성했다. 우선 돼지 간에서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모두 씻어내(탈세포) 혈관과 구조물(세포외기질)만 남긴다. 그리고 그 뼈대에 유전자 편집으로 면역거부반응을 없앤 인간의 줄기세포 유래 간세포·담관세포를 심는(재세포화) 방식이다. 면역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하는 기존 이종장기의 한계를 넘은 기술로, 최근 2단계 연구 논문까지 발표하며 심장 등 다양한 인공장기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템-오에이’는 국내 유력 제약사와 손을 잡았고 글로벌 기업과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진피와 표피를 구현한 피부 오가노이드를 통해 모낭을 재생하는 탈모 치료 연구도 국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역노화 방법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120세까지 열려 있지만, 현재 우리의 ‘건강수명’은 80세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세를 살더라도 20년을 병상에 누워 지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천천히 늙는 것도 전략이다. 노화와 질병의 근원은 결국 ‘만성 염증’이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와 이를 조절하는 세포가 평형을 이루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저강도 자극이 누적되어 이 항상성이 깨지면 염증이 폭주하며 급격한 노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상에서 염증 수치를 낮추고 줄기세포의 체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육을 지켜라 ▲단백질을 충분히 나누어 먹어라 ▲잠을 치료처럼 다뤄라 ▲혈당과 내장지방을 관리하라 ▲염증을 낮추는 식사를 하라 ▲스트레스는 낮추고 사람과 연결돼라 ▲담배는 끊고 술은 줄여라 등 7가지 전략을 지켜야 한다. ‘9988234(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 앓고 생을 마감한다)’를 실현하려면, 결국 내 몸속 줄기세포의 체력을 지키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BNK에 담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된 꿈이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지도록
BNK금융그룹이 해양수도권의 두근두근한 미래와 함께합니다

2026년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및 선박·해양인프라 금융 확대





부산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 특화센터 운영**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 · **에너지산업 금융지원 확대**



경남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 **해양 · 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 금융 확대**

본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청와대 참모·친명계 전면 배치… 李, 친정 체제 '굳히기'

청와대 출신 3명 내각 입성
외교안보 전면 교체·측근 기용
국민의힘, '회전문 인사'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측근을 전진 배치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친정 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부처에 청와대 참모 출신 3명이 포진하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을 산하에 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여기에 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하면 수사와 기소를 관할하는 부처 수장이 모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내년이면 햇수로 집권 3년 차인 상황에서 친정 체제를 통해 국정 과제에 속도를 높이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연말은 '청문 정국'으로 술렁일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23일) 지명한 국가정보원장과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이 청와대 출신이다. 임웅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고, 강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청와대 수석대변인이다. 홍익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참모 3명이 한꺼번에 내각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강금실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강 후보자는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후원회장, 지난해 대선에선 선거대책본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강 후보자는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이끈 바 있어, 정보기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인선 이유다.

외교안보라인의 무게중심도 한미동맹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는 '동맹파'로 옮겨지면서, 이 대통령과 가까이 일한 이들이 발탁된 점이 특징이다. 지난 8월 개각 때 유임됐던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이번에 모두 교체됐고,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되던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함께 물러나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한미동맹을 재정비하면서 실용 외교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웅순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 곁에서 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며 한미 관세협상, 한일 셔틀외교 정착 등 성과를 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후보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참여정부 통일부 정책보좌관 등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정무수석으로서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점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한준호 의원을 발탁한 것도 이 대통령의 친정 체제 강화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대선 이 대통령 수행실장을 지낸 친명계 핵심으로, 한때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 주요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부처인 셈이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이미 이용철 후보자가 지명돼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성남시장직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한준호·이용철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수사(행안부)와 기소(법무부)의 두 축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최근 친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지방선거 경선에서 경쟁자인 점을 두고, 이번 인선이 일종의 '견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자체 관련 업무도 관할하는 부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인선 양상이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나 '성남라인' 등으로 '인재 풀'이 좁아진 모양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에 올해 연말에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외부 인재 수혈 없이 청와대 참모와 여당 핵심 인사를 부처 수장으로 기용하는 '회전문·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민석 취임 100일… 민주 갈등 봉합 '과제'

별도 간담회 없이 민생 행보
정청래 전 의원, 김민석 겨냥 SNS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돌봄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별도의 기자간담회 없이 당 유튜브 방송 출연과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김 대표는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 끝에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꺾고 당 대표 업무를 시작했으나,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선출되면서 순탄치 않은 100일을 보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출범시킨 '당원 조사 TF(태스크포스)'가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하자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연일 압박했다. 결국, 당원 조사 TF의 보고가 예정됐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분열주의·반(反)이재명'의 제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과 친청계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또한,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역구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란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하고, 윤리심판원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심의하면서 당내 갈등은 고조하고 있다.

김 대표도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의 갈등 상황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역시 소리가 나는 건 당에서 소리가 난다"면서 "소리가 나는 부분은 잘 풀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초반에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저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의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러 지표와 성과만큼 더 확 와닿을 체감 민생, 이것이 당이 노력해야 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법원장 탄핵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 가고 있는데, 내란 진압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완전 정리 단계의 일이기에 그로 인해 민생에 대한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용철 "국민 납득 못 할 일 안 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이용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권 오·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이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설'을 부인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청장을 지냈고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열을 올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탈옥 특검'을 발족하고 수사해서 몇 명이 기소되면, (그 때) 장관으로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 탈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특검의 출범 목적이 "검찰권 오·남용으로부터 불법적인 기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재차 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 중 12건이 이재맹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이라며 "권력 가진 사람이 이권을 가져간 사건이다. 일반 국민은 피해자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 코스닥 상장사 바이넥스 겸직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직원 감봉 처분 등을 거론하며 "준법의식과 이해충돌 개념이 없다"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왜 이 시점에 꼭 해야 하는가. 국민 보시기에 보은인사로 보고 공소취소에 적임자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저러한 법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여러 잘못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李,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검토

"행정력 총동원해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일정 기간은 다른 시험도 못 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능은 지났으나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단 하나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력을 겨루는 모든 시험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훔치는 것이고, 공정 경쟁이라는 공동체의 핵심 원리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범죄와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험 전반에 대한 범정부 합동 조사를 바탕으로 숨어 있던 부정행위를 밝혀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신고 센터를 운영해 모든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존 시험과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이제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수호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단합

시작은 하나의 에너지였다

여기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또 다른 에너지가 모여

역사에 남을 길이 열리고 있다

힘이 모이면 길이 된다



SK 이노베이션

SK 온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지배구조·생산적 금융·스테이블코인… 3대 현안 '시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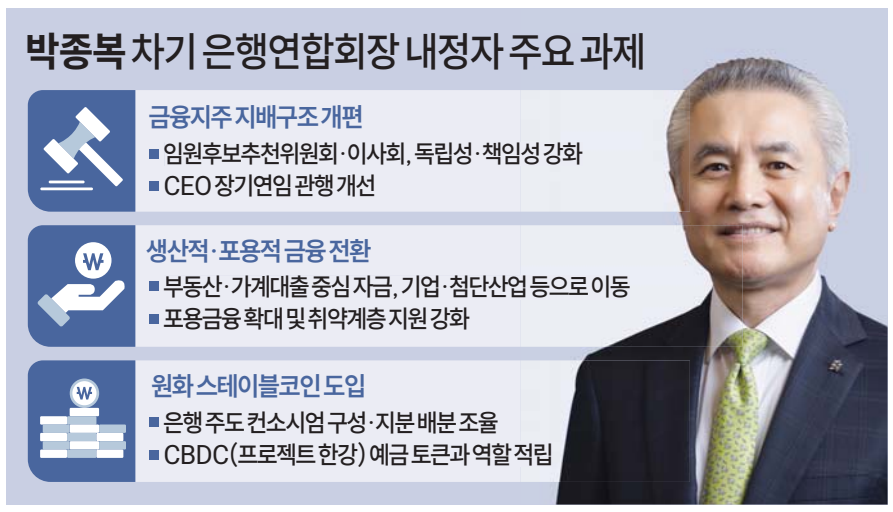
박종복 차기 은행연합회장

내일 사원총회 거쳐 회장으로 선임
금융당국-은행권 관계조율 관건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은행권의 주요 현안을 풀어갈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과 생산적 금융 전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 내정자를 사원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박 내정자는 26일 사원 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정식 선임된다.

박 내정자가 풀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대응이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 강화, 은행지주 최고 경영자(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 기관투자자의 주주역할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편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CEO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의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는 한편,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에 나선 만큼 박 내정자는 정책 취지에 발맞추면서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된 금융권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중소기업, 지역산업 등으로 돌리는 금융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등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도 내놨다.

은행권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대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부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내정자는 은행별 부담을 조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밖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대응도 박 내정자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이 발행 주체로 나서는 만큼 향후 컨소시엄 구성과 지분 배분,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을 둘러싼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서 활용하는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간 역할 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과거 은행연합회 이사 시절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며 "은행권 전반을 아우르며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증시 변동성에 이익 급감… 캐피탈사 '비상'

신한, 3분기 투자이익 841억 23%↓
JB우리, 유가증권이익 98% 급감소
하나, 매매평가 손실 전분기의 9배
"본업 경쟁력 강화, 순익 방어해야"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이 커졌던 캐피탈사의 수익에 비상등이 켜졌다. 증시 활황에 '이익 특수'를 누리던 캐피탈사들의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다.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유가증권 투자이익이 급감했다.

24일 각 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의 3분기 유가증권 투자이익은 841억원으로 잡계됐다. 전년 동기(1092억원) 대비 23% 감소했다. JB우리캐피탈은 3분기 유가증권이익은 8억원이다. 전년 동기(401억)와 비교하면 무려 98.1% 급감했다.

하나캐피탈은 3분기 매매평가이익 마이너스(-)1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17억원) 대비 적자 폭은 줄었으나 전 분기(-14억원)와 비교하면 1분기 만에 손실 규모가 약 9배 증가했다.

유가증권 투자이익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괄한다. 회사별 기준에 따라 이자·배당 수익 등이 포함된다.

매매평가이익은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현이익과 보유 자산의 시세 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을 합친 것을 뜻한다. 매매평가이익과 유가증권 투자이익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운용 성과를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가증권 투자이익에 의존해 온 캐피탈사들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캐피탈사들은 올해 초 증시 활황 특수에 힘입어 대규모의 투자 이익을 거둬들였다. 신한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은 1분기 유가증권 부문 수익으로 각각 2188억원, 357억원을 벌었다. 3분기와 비교하면 투자 관련 손익이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각각 62%, 98%씩 깎여 나간 것이다.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다. 올해 한때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이례적인 활황을 보였으나 현재 코스피는 4000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다.

투자 수익 급감은 캐피탈사 순익 타격으로 이어졌다.

신한캐피탈의 3분기 당기순익은 231억원이다. 전 분기 대비 29.7%,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JB우리캐피탈은 전년 동기보다 17% 줄어든 663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나캐피탈은 401억원의 순익을 냈다. 전년 동기(491억원)보다 18.3% 감소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캐피탈의 경우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캐피탈사들이 투자 이익이 아닌 본업경쟁력 강화로 순익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캐피탈사들의 여신성 자산 기반 수익창출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정체 및 감소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투자금융 및 기업금융은 소매금융 대비 경기 민감도가 높고 실적 변동성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거시경제 변동성 확대 시 캐피탈사의 사업안정성 및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청약 신청 자격·가점 계산 '3분 서비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청약 3분 체크업' 서비스 제공

주택 청약에 앞서 신청 자격은 되는지 가점은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공급되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가 본인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청약 3분 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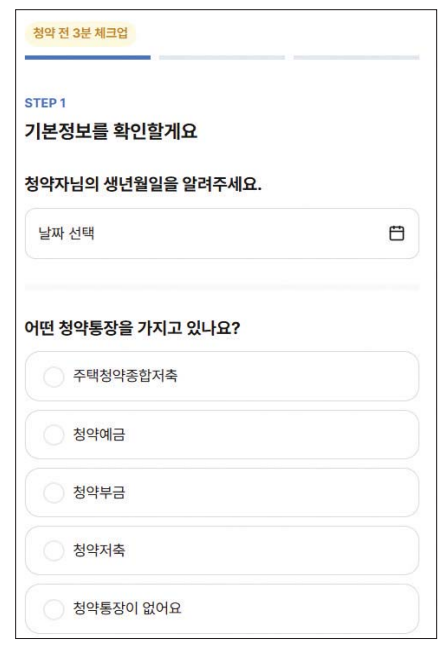
청약 3분 체크업은 청약 신청에 앞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과 자격, 순위, 가점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점검 결과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문구까지 생성해 준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청약통장 가입정보와 예치금, 가족 구성, 주택 소유 현황 및 이력, 거주기간 등 주요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하면 된다. 각 단계별 질문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안내가 제공돼 청약을 처음 준비하는 수요자도 복잡한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이 완료되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과 일반공급을 포함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청약 유형별 주요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공급 청약 가능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유형별로는 조건이 달라 각각의 충족 여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까지 별도로 표시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예상 청약순위와 가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AI 기술도 접목했다. '내 결과로 AI에게 물어보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청약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AI에게 물어볼 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청약통장, 주택 소유 이력, 가족 구성 등 입력한 조건과 체크업 결과가 반영된 개인별 질문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용자는 생성된 문구를 활용해 생성형 AI에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청약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청약 3분 체크업' 서비스. /롯데건설

또한 사전점검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도 별도로 안내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신청 자격과 순위,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는 서초동 1448번지에 조성됐다. 총 835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35~46㎡ 14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35㎡, 37㎡A·B·C, 39㎡B, 46㎡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가깝고, 예술의전당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와 라운지,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며,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일반공급 1순위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지역·주택형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에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1순위 신청이 제한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3년 6개월 조합설립인가 112일 만에 완료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촉진' 적용
사업지 4곳 평균 172일만에 인가

서울 송파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12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통상 3년 6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마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사전에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 정책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4곳(6132가구)이 정비구역 지정 후 평균 172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구역별 조합설립 소요 기간은 송파한양1차 112일, 독산2구역 141일, 사당17구역 211일, 신림8구역 223일이다. 4개 구역 모두 표준처리기한인 365일보다 142~253일 앞당겨 인가를 받았다. 당초 2032년이었던 착공 목표 시점도 모두 2031년으로 앞당겨졌다.

조합설립 기간 단축의 핵심은 절차의 병행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조합설립 표준처리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며 사업장별 일정을 관리해 왔다. 또 '규제철폐 142호'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청장 판단에 따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8월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을 구역 지정 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추정분담금 이의신청 기간도 기존 60일 이상에서 30일로 줄이고, 이 기간에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lhj@

SK그룹, AI 중심 사업확장… '투자여력·수익성 관리' 과제

HBM 생산설비 대규모 자금 투입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 검토
글로벌 AI 투자 위축시 부담 작용



지난 21일 울산에서 촬영한 SK에어코어(SK aircore) 건물 외관. /구남영 기자

SK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부터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AI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프라 사업을 연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지만, 빅테크의 설비투자가 둔화할 경우 반도체 수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와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도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증설에 후공정까지…AI 사업 영역 전 계열사 확대

SK그룹의 AI 투자 확대를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청주 M15X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증설을 추진하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설비투자액은 31조216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30조173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투자액도 40조원대 후반에 이를 전망이다.

AI 사업 확대는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환경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SK하이닉스에서 패키징 사업을 담당했던 홍상후 부사장을 영입하고 메모리 모듈 조립과 후공정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자회사 에센코어의 메모리 모듈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으로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2027년 4분기 첫 가동을 목표로 SK에코플랜트가 설계·시공을, SK가스와 SK멀티유틸리티가 연료 및 전력 공급을 각각 담당한다.

울산 사업에는 정부 지원도 더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와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건설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 5기가와트(GW) 규모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시장 수요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15GW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투자 위축땐 반도체·인프라 동반 부담

SK그룹의 사업 확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둔화가 변수다. 주요 고객사들이 AI 서버 투자를 축소하면 엔비디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HBM 수요가 줄어들고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고객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기공급계약으로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지만 신규 발주가 감소하면 증설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 SK텔레콤이 검토 중인 15GW는 울산에서 건설 중인 100MW의 150배 규모로, 시설 확장에 앞서 장기 고객 계약과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초기 건설비뿐 아니라 가동 이후에도 전력·냉각 비용 등이 발생해 가동률이 낮아지면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고객 수요를 확보한 뒤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신설 법인 SK하이퍼가 글로벌 사업자 3곳에서 4곳과 사업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7년 상반기까지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신규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은 외부 자본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활용하되, 사업별 투자 규모와 집행 시기를 조절해 재무 건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면서 계열사별 투자 여력과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는 수익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 고객 계약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룹 전체 투자 효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 차세대 갤럭시 '엑시노스' 확대 가능성

자체 AP 기반 원가부담 완화 기대
성능·공급능력 등 탑재 비중 변수



삼성전자 엑시노스 심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2700'의 탑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AP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IT 기기 성능 측정 플랫폼 '긱벤치'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7 프로로 추정되는 모델(SM-S957B)이 등장했다. 해당 모델의 프로세서 식별명은 엑시노스2700으로 알려진 'S5E9975'로 확인됐다. 성능 측정 결과 싱글코어 3061점과 멀티코어 1만967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S27 시리즈에 프로 모델을 추가해 라인업을 4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유럽 등에 출시되는 기본형·플러스·프로 모델에는 엑시노스2700을 탑재하고 북미와 중국 등 일부 시장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의 AP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엑시노스27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세대 2나노 공정(SF2P)을 적용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전공정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생산 물량도 전작 대비 10% 이상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차세대 모바일 AP의 AI·게이밍 성능을 개선하고 양산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키징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엑시노스2700에는 AP와 D램을 수평으로 배치해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 개선에 유리한 사이드바이사이드(SbS)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프리미엄 AP용 SbS 기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체 AP 탑재 확대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의 원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7929억원으로 DX부문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17.3%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체 AP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원가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엑시노스의 안정적인 성능과 공급 능력 확보 여부가 향후 탑재 비중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하이닉스, 소부장 협력사 R&D 지원 확대

5년간 1000억 규모 '도전보상제' 운영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실패 위험을 분담해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4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부터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R&D 도전보상제'를 운영한다. 지난 9월 열린 '2026 파트너스데이'에서 협력사에 처음 소개한 제도로 기술개발에 실패하거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과제에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중소·중견기업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전략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협약 체결과 동시에 초기 개발 자금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개발에 성공한 과제에는 남은 개발비를 전액 지급한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과제도 기술적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협력사가 직접 기술을 제안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혁신기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유망 소부장 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공동 기술개발, 개발자금 무이자 대출, 생산라인 테스트, 최소 구매 물량 보장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의 기술개발 성과를 양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7년 5월 가동을 목표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동 테스트 시설 '트리니티 팹'을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 지원체계를 기술개발, 실증·양산, 자금, 인재 채용·육성 등 4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그룹, 글로벌 '트리플 코어' 전략 본궤도

호주·美 등 3대 가스 생산거점 확보

포스코그룹이 미국 셰일가스전 인수를 마무리하며 북미 에너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트리플 코어(Triple Core)'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코드에너지가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주 애팔래치안 셰일가스전 지분 전량을 5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본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인수자금 일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로 조달했다.

이번 인수는 포스코그룹이 지난 7월 트리플 코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첫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사례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자원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착수하고 전략자원 분야에서 아르헨티나 리튬염호와 호주 리튬광산 광권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인수한 애팔래치안 셰일가스전은 미국 북동부의 핵심 셰일가스 생산지로, 총 1305개의 생산정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액화천연가스(LNG) 환산 기준 약 100만t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에너지에 이어 미국까지 3대 글로벌 가스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생산·시추·인허가는 현지 운영사가 담당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에 해당하는 가스를 배분받아 직접 판매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수 가스전 운영과 생산정 추가 개발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보령공장 현장 점검

품질·안전경영 강화 행보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23일 충남 보령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공장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충남 보령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 격려에 나섰다.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보령공장의 제조 경쟁력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GM은 비자레알 사장이 23일 보령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비자레알 사장은 "보령공장의 경쟁력은 현장을 지키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GM 차량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中 선점 소듐이온배터리 시장… K-배터리, 상용화로 '도전장'

LG엔솔 , 내년 양산 목표로 검증
삼성SDI·SK온, ESS용 제품 개발

소듐이온 저렴한 원료에 저온 강점
中 CATL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정부, 차세대 배터리 개발 4000억 지원



ChatGPT로 생성한 소듐이온배터리 이미지.

국내 배터리 3사가 리튬 대신 나트륨을 원료로 쓰는 소듐이온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CATL이 대규모 공급 계약과 승용차 탑재로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은 ESS용 제품을 중심으로 소듐이온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상용화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내년 양산을 목표로 중국 난징에 연간 20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시험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충북 오창에서는 양산 기술을 검증하고 있으며 북미 고객사와 ESS용 샘플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SDI는 울산을 소듐이온배터리 양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장주기 ESS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적용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중 공개할 방침이다. SK온은 ESS용 제품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2028년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전기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듐이온배터리는 매장량이 풍부한 나트륨을 원료로 써 리튬 계열 배터리보다 원재료 비용이 적고 화재 위험이 적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에 쓰면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 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성능이 높은 삼원계(NCM) 배터리 사이를 메우는 가성비 제품으로 꼽힌다. 최근 리튬 가격이 1년 새 두 배 넘게 뛰면서 원가 경쟁력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기온이 떨어지면 출력과 충전 성능이 낮아져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소듐이온배터리는 저온에서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어 추운 지역의 전기차와 ESS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CATL의 소듐이온배터리는 영하 40도에서도 용량의 약 90%를 유지한다.

국내 업체들이 상용화를 준비하는 사이, 중국은 소듐이온배터리의 이런 장점을 앞세워 이미 양산과 공급에 들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중국 ESS 업체 하이퍼스트룽과 3년간 60GWh 규모의 소듐이온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창안자동차와 함께 소듐배터리를 탑재한 양산차를 내놓았다. 배터리 교환소도 늘려 짧은 주행거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앞서 키우면서 생산 기반도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전 세계 소듐이온배터리 생산능력이 거의 모두 중국에 있고 2030년에도 중국 비중이 95%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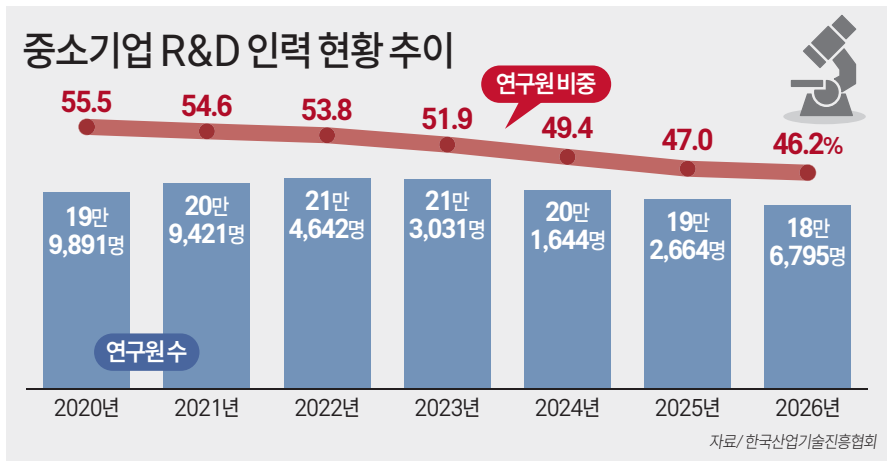
LFP 배터리 시장을 중국에 먼저 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소듐이온배터리만큼은 상용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차세대 배터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하고 2027년부터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을 합쳐도 CATL 한 곳을 넘어서기 어렵고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나 중국산 배터리 배제 움직임을 틈새로 활용하는 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다"며 "배터리 쓰임새가 ESS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넓어지는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힘을 모아 새로운 배터리 개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줄어드는 中企 연구인력… AI 전환기 기술경쟁력 '빨간불'

중소벤처기업硏, R&D 인력 보고서
최근 4년새 연구개발 인력 13% 감소
AI 인재 필요에도 절반 채용 여력 없어
10명 중 7명 3년내 퇴사·고령화 심화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들이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인력이 줄어들고, 필요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채용 여력도 없는 등 고전하고 있다.

어렵게 뽑은 R&D 전문인력도 10명 중 7명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나가고,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필요한 R&D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9곳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보조금이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지원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AI 전환기, 중소기업 R&D 인력의 위기와 기회'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중소기업 R&D 인력은 2022년 당시 21만4642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8만6795명으로 4년새 2만7847명(13%)이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견기업(1만4793명·29.3%)과 대기업(1만8682명·14%)에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AI가 연구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되지만 관련 전문인력 채용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R&D 수행 중소기업의 85.2%는 AI 전문인력 채용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45.6%는 실제 AI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50.9%는 채용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R&D 중소기업의 82.3%는 연구개발시 회사 차원에서 AI를 활용하고, 94%는 AI 활용이 회사 기술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잦은 이직 때문에 뽑아도 걱정이다.

새로 채용한 R&D 전문인력이 3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은 고작 27.2%에 그쳤다. 응답기업의 86.2%는 회사에서 필요한 R&D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채용이 힘든 이유는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47.1%)거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과 지원자 역량 수준의 차이(35.7%)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R&D 인력의 석·박사 비중도 25.4%로 대기업(41.8%) 대비 16.4%p 낮고,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 역시 13.4%(2020년)에서 21%(2025년)로 7.6%p 증가하는 등 인력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김승호 기자

충남 中企 기술탈취 피해 수사 단계부터 구제 지원

대중기협력재단·기보·충남경찰청 협약

기술 탈취를 당한 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충남경찰청과 충남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예방과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세 기관이 역할을 분담키로 한 것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 기업의 기술을 빼는 기술 침해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피해 기업이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손해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충남경찰청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중기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원할 경우 재단에 연결해 준다. /김승호 기자

현대위아, 전기차 핵심부품 시장 공략 속도

전·후륜 동시 제어 시스템 개발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 향상

현대위아가 전기차의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을 높이는 전동화 핵심부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국내 최초로 전륜과 후륜에 듀얼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를 동시에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전기차 GV90에 탑재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현대위아는 전·후륜에 e-LSD를 동시에 적용한 'Dual e-LSD'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e-LSD가 전륜 또는 후륜 한 곳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네 바퀴의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LSD는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 한쪽 바퀴가 헛돌 경우 다른 바퀴에 구동력을 집중해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현대위아는 이를 전·후륜에 모두 적용해 노면 상황에 따라 네 바퀴의 구동력을 정밀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현대위아의 한 직원이 24일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2공장에서 'Dual e-LSD'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위아

특히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차체 중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워 고속 선회 시 안정적인 접지력 확보가 중요하다. 현대위아는 전·후륜 구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코너링 과정에서 차량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언더스티어와 후륜이 미끄러지는 오버스티어 현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위아는 통합 제어 기술도 자체 개발했다. 하나의 제어기로 전·후륜 e-LSD를 동시에 제어하며 네 바퀴의 주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에어로, 軍 전용 AI 데이터센터 짓는다

창원에 180MW 규모로 구축
미래 안보 핵심 인프라 확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남 창원에 국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보안 문제로 상용 데이터센터를 쓸 수 없는 군을 위한 전용 시설로 완공되면 우리 군 AI 역량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AI 데이터센터(AIDC) 건설 현장을 찾은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가AI전략위원회·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창원사업장 인근 약 1만3000평 부지에 들어선다. 2028년 7월 일부를 가동해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180메가와트(MW) 규모의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를 갖출 예정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의 약 13% 수준이다.

국방 AI 역량 강화는 미래 안보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병력 자원이 줄면서 유무인 복합 작전과 자율 임무 수행이 늘고 위험 임무는 무인 장비가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 AI는 보안 문제로 일반 상용 데이터센터를 쓸 수 없다. 외부 침입을 막는 망 분리와 국가 최고등급 수준의 보안을 갖춰야 하고 재난·비상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한다.

이에 한화는 군이 데이터 소유·통제권을 갖고 방산기업이 시설을 수탁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는 수탁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도 쌓아 왔다. 2011년부터 죽전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방산 계열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계와 시스템 통합을 맡고 있다.

이번 사업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7월 발표한 55조원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한화는 1단계 투자금으로 10조원을 책정했다. /원관희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함께 키운 성장 경쟁력

중기부, 동반성장 우수사례 10건 선정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중소기업인 푸드코아의 크림빵 제조기술에 자사의 상품기획·유통·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연세우유 크림빵'을 제조해 1억개 넘게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덕분에 푸드코아의 매출은 2.3배 늘었고 해외진출을 통해 지난해 '수출 100만불 탑'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 수여식'을 열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이룬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건에 기념패를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반성장주간을 맞아 뽑힌 올해 우수 사례는 ▲핵심기술 자립 및 국산화(3건) ▲공공 인프라·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3건) ▲국내외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2건) ▲인공지능(AI)·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2건) 등이다. /김승호 기자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서비스 10개월 만에 3000회선 넘어 '순항'… 관리공백은 여전

스타링크 국내 상륙 1년

국적 선박 87% 스타링크 도입
대한항공 등 기내 와이파이 운영

이용약관 신고의무 없어 '혼선'
이용조건·요금 변동 파악 어려워
이용자 데이터, 주변국 거쳐 처리
국가 안보 핵심분야 위협 우려도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가상 이미지. /스페이스X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국내 상륙한 지 1년을 앞둔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요금 신고 의무와 국내 게이트웨이가 없어 이용자 혼선과 보안 우려가 지적된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지난해 12월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기업간거래(B2B)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선원기금재단 집계 결과, 지난 5월 기준 정부가 지정한 국적 선박 등 300척 중 약 260척이 스타링크를 도입했다. 이는 전체의 약 87%에 이르는 규모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 계열사 5곳도 스타링크 기반의 기내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가입 회선은 올해 9월 말 기준 약 3300개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 중이다. 우리 정부가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신청을 받은 2024년 당시 스타링크로부터 받은 출시 1년차 가입자 전망치(2100여 명)를 웃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뒤 1년 가까이 관리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이스X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혼선 발생과 보안 우려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스타링크 국내 법인은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 약관 변경 시 주무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요금이나 이용조건이 바뀌어도 정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내 재판매 사업자 KT SAT(샛)은 스페이스X의 요금 조정 통보에 따라 이달부터 해상 서비스 요금을 인상했다. 추가 데이터 50GB 요금은 19만원에서 29만1000원으로 약 53% 올랐다. SK텔링크도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제 할인 폭이 부풀려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스타링크코리아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보면, 할인율은 50%로 높지만 정가는 지난해보다 6% 가량 올랐다. 주거용 라이트 요금제는 지난해 12월 출시 당시 6만4000원에서 현재 6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한 가지는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게이트웨이는 저궤도 위성의 무선 신호를 지상의 광케이블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지상 중계국이다. 국내에는 스타링크 게이트웨이가 없어, 국내 이용자의 데이터는 일본 등 주변국 게이트웨이를 거쳐 처리된다. 국가의 중요 데이터가 해외를 거치는 셈이지만 이를 해소할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한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쟁점이 됐다. 공공기관과 방산 등 국가 안보의 핵심 분야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부 업무망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돼 있다.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내부망에 접속하려면 별도 단말기에서 암호화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 위치와 접속 이력 같은 기록은 남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이 같은 우려가 처음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여전히 스타링크 측과 게이트웨이 국내 이전을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스타링크는 위성과 게이트웨이를 오가는 사용자 트래픽이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해외 지상국을 거치더라도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승인 당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심의한 만큼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AI가 코드 승인까지… 개발현장 판도 바뀐다

앤트로픽-깃허브, '클로드십' 공개
코드 변경 요청 검토·수정·승인 지원
전문가 "검증 강화·권한 제한 필수"

앤트로픽과 깃허브가 인공지능(AI) 개발 도구의 역할을 코드 검토에서 승인으로 넓히고 있다. 개발팀이 정한 정책과 설정에 따라 AI가 코드 변경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자동화로 아낀 시간을 검증에 투입하고, AI에 맡길 권한도 시스템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코드 변경 요청(PR)의 검토·수정·승인을 지원하는 '클로드 십'을 공개했다. PR은 수정한 코드를 기존 코드에 합치기 전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기존 코드 검토 기능에 수정·승인 에이전트 2종을 베타로 추가했다.

수정 에이전트 'PR 스튜어드'는 자동 검사 실패와 코드 충돌, 검토 의견에 대응한다. 수정 내용과 되돌리는 방법도 알리지만 직접 승인하거나 코드를 병합하지는 않는다. 승인 에이전트 '클로드 어프루벌스'는 개발팀이 작성한 정책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거나 사람의 추가 승인을 요구한다. 팀·기업용 요금제에서 깃허브 저장소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깃허브도 지난 10월 28일부터 '코파일럿 코드 리뷰'의 PR 승인 기능을 정식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가 해당 기능을 켜면 코파일럿의 승인도 변경한 코드를 기존 코드에 합치는 데 필요한 승인으로 인정된다. 다만 실제 코드 병합에는 저장소별 권한과 보호 규칙이 적용된다. 승인 기능에도 개발팀의 통제 장치를 뒀다. 깃허브의 켄지 츠노다 일본·한국 엔터프라이즈 사업 총괄 이사는 "코파일럿의 승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다"며 "관리자가 승인 가능한 파일 경로를 정하고, 새 커밋이 추가되면 기존 승인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 절차를 자동화해도 코드의 결함이 모두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유신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모든 테스팅은 불완전하다"며 "특정 입력값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다른 입력값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데서 아낀 시간을 훨씬 더 검증에 써야 한다"며 AI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부터 검증 기준을 세우는 '테스트 주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소 교수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 비용이 큰 작업에는 AI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부 정보를 읽는 에이전트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분리하고, 두 에이전트 사이에 전달되는 정보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김보민 기자 kbm@

LG U+, '익시오' 이상신호 대응체계 강화

데이터독 'Bits AI' 적용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데이터독과 협력해 자사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의 이상신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이터독은 기업의 IT 시스템 전반을 통합 분석하는 옵저버빌리티와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특히 'Bits AI' 기술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받은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유플러스는 디자인 파트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its AI'를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실제 익시오 개발·운영 환경에 적용했다. 디자인 파트너는 데이터독의 기술을 기업 서비스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점을 함께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고객 불편 분석과 장애 대응 등 익시오 운영 업무에서 'Bits AI'의 효과를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고객 불편이 접수된 사례에서는 익시오 고객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시스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문제 원인을 찾았다. AI를 적용해 여러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서 원인 파악부터 개선 사항 반영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약 86% 줄였다. 기존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장애 대응에서도 효과를 확인했다. AI가 장애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문제의 원인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했다. 이를 통해 장애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85% 단축했다. 또 서비스에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신호를 찾아 원인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 /조민선 기자

KT,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연구·발전 도모

육군교육사령부와 '맞손'
'KCCS-Army' 연구과제 발굴

KT가 인공지능(AI)·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방 분야의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KT는 육군교육사령부와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KCCS-Army 연구·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육군의 작전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지휘통제체계인 KCCS-Army의 연구·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KT는 AI·클라우드·5G 등 국방 AX 역량을 바탕으로 육군교육사령부와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지휘통제체계 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AI·클라우드·5G 등 첨단기술 공유 및 자문 ▲전투실험 등 연구개발 관련 과제 공동 발굴 ▲미래 육군의 첨단 핵심기술 및 신무기체계 발굴 지원 등에 협력한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육군 작전환경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특히 KT는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국방 5G 인프라 등 국방 분야에서 축적한 통신·데이터 인프라 구축 경험을 활용한다. 육군의 미래 작전환경에 적합한 AI·네트워크 기술을 제안하고, KCCS-Army 연구를 위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공공/금융사업본부장 김원태 전무(왼쪽)와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정광웅 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KT

KT는 협약식에 앞서 육군교육사령부 관계자들에게 KT 광화문빌딩 West에 위치한 AI 이노베이션 허브를 소개하고 국방 AX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KCCS-Army 연구를 위한 세부 협력 분야와 향후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조민선 기자

삼성SDS, 부사장 4명·상무 6명 승진

2027 정기 임원 인사 실시

삼성SDS가 올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 4명과 상무 6명 등 10명을 승진시켰다.

24일 삼성SDS는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전환(AX)이 가속화 되는 시장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핵심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용하여 세대교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부사장 승진자는 ▲문관휘 전략마케팅실 유통·서비스AM팀장 ▲이제나 전략마케팅실 상품전략팀장 ▲이지환 전략마케팅실 금융담당 금융컨설팅팀장 ▲한상원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MSP담당 MSP사업팀장 등 4명이다.

상무 승진자는 ▲강남이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MSP담당 MSP공통실행팀 클라우드아키텍처그룹장 ▲김동한 AX센터 AI실행팀 데이터플랫폼실행그룹장 ▲우형택 전략마케팅실 금융담당 금융AM2팀장 ▲조경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MSP담당 금융IT팀 금융실행그룹장 ▲조원혁 솔루션사업부 ERP담당 ERP기술팀장 ▲최진경 물류사업부 해상Pricing팀장 등 6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특히 여성 리더 3명을 비롯해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AX), 클라우드 및 솔루션 기반 서비스류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한 리더들을 두루 발탁했다. /조민선 기자

반도체 호황에 韓 성장률 3.2% 전망… 내수 회복은 '제한적'

골드만삭스, 韓 거시경제 진단
삼전닉스 등 일부 기업에 수익 집중
민간소비 증가율 2% 수준 예상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시장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물량이 늘어나면 소재와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삼성전자가 업체들에 돈을 더 주지는 않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호황이 곧바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하더라도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이익은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가계 소비로 퍼지는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권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종로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열린 '2027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2%로 상향했다.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3.5% 성장도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수준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소비로 퍼지는 효과는 제한적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에도 내년까지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가 반도체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권 이코노미스트는 "2028년 문제이지 2027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가 내수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AI 관련 제품의 생산량이 늘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도 혜택을 받지만, 한국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임금과 배당소득 증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가계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주가 하락과 고령화, 이자 부담 때문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증시 조정과 관련해 "주가가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의 역자산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최종금리 3.5% 넘을 이유 없어"… 연말 환율 1280원 전망

소비 회복이 약한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도 제한될 것으로 봤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 과열보다 유가와 환율 등 수입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다.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고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5%에 머문다면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3.5%를 넘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280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약 20%에 달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금과 배당금, 법인세를 지급하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원화 수요가 내년 GDP의 10% 이상으로, 올해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회복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데이터센터 규제와 신용시장 불안, AI 수요 약화로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은 경계했다. 비반도체 제조업에는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른 경쟁도 부담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와 수출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너무나 크고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흩어진 AI 하나로… 코스콤, AX 체계 구축

전사 AX 4대 전략·8대 과제 공유
사내 AI 해커톤 열고 아이디어 발굴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Koscom Tech Summit 2026'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스콤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 온 코스콤이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업무 경쟁력으로 키우고 있다. 개별 부서에서 시도하던 AI 활용을 전사 차원의 과제로 묶고, 개발·운영부터 보안관제와 지식관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코스콤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내 기술 행사 '코스콤 테크 서밋(Koscom Tech Summit) 2026'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전사 AX 추진단의 활동 현황과 최근 1년간의 AI 전환(AX) 적용 사례를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본사 15층 강당의 발표 세션과 1층 로비의 전시·체험 부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부서별로 진행하던 AI 활용을 전사 차원의 추진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AX 주관 조직뿐 아니라 정보보호부 등 현업 부서와 사내 해커톤 수상팀도 발표자로 참여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은 기조연설 'KOSCOM AX, 한 장의 지도'에서 전사 AX 추진체계와 4대 전략·8대 과제를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가장 큰 일은 부서마다 따로 하던 AI를 한 장의 지도 위에 모은 것"이라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AI 활용 경험을 전사 차원의 로드맵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콤은 지난 1년간 운영·개발 업무에 AI를 적용해 왔다. 테스트 자동화와 C언어 코드의 자바(Java) 전환에 AI를 활용하고, 사내 지식화 서비스 'X.On'도 준비하고 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전용 구역과 사내 AI 모델 'X-pro'를 갖췄으며 보안관제 업무에도 AI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업무 개선 방안을 찾는 시도도 이어졌다. 코스콤은 사내 코딩 해커톤 'ㅋㅋ톤'을 열고 '내 업무의 불편함을 AI로 해결'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았다. 총 36개 팀 68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팀 1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인 'C2X' 팀을 포함해 모두 4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작은 코드 변경이 다른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AI로 분석해 장애 예방을 돕는 도구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산출물도 자동으로 작성해 개발자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기능을 담았다. 코스콤은 해당 수상작을 사내 AI 환경에서 검증하고 보안 검토를 거쳐 관련 부서 업무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심화 세션도 진행됐다. 'AI Adoption'과 'AI Engineering' 두 트랙으로 나눠 사내 지식화와 보안관제 분야의 AI 활용, 사내 AI 모델 운영, 원장 코드 전환 사례 등을 다뤘다.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AI를 구동하는 GPU와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구성 등 인프라를 소개했다. 사내 문서와 회의 내용을 지식으로 축적해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과정과 AI 에이전트 기반 코딩(Agentic Coding)도 선보였다. AI 모델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업무에 연결하기 위한 기반과 활용 방안을 함께 공유한 것이다. 코스콤은 올해 마련한 전사 AX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AI의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작년 첫 행사가 '이런 AI가 있으니 한번 써 보자'였다면, 올해는 '직접 써 보니 이렇게 달라졌다'를 나누는 자리"라며 "올해가 AI를 쓸 바탕을 깐 해였다면, 내년은 AI가 각자의 업무 안으로 들어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거래소 지분 20%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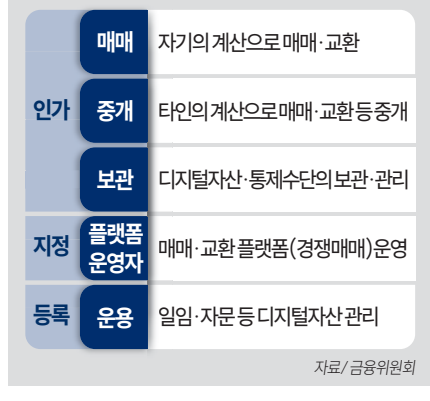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판매도 허용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초기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판매(ICO)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중개·보관·운용업과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거래소)로 세분화하고 업무 특성에 따른 인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되 핀테크·기술기업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발행업자는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준비자산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발행잔액 1조원 이상인 스테이블코인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식 소유 한도는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34%까지 허용한다. 기존 거래소에는 최대 6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ICO도 허용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전산 안전성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거래소, 불법 공매도 합동점검

이상징후 포착시 즉시 감리·조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급락 종목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집중 점검한다. 특정 계좌에 거래가 몰리거나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공매도 계좌의 주문·체결 내역을 추적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과 거래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공매도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22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감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과 조사1국 시장감시팀, 거래소 시장감시부와 공매도특별감리부가 참여한다. 양 기관은 23일 합동회의를 열고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거래소는 실시간 공매도 감시를 통해 거래 급증이나 특정 계좌의 거래 집중 등 이상징후를 살피고,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의심 거래에 공동 대응하고,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로 신속하게 넘길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주가가 급락했거나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이다. 주요 시장 이벤트와 종목별·계좌별 매매 양상을 함께 분석해 불법공매도 혐의는 물론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여부도 살핀다.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매도 계좌는 주문·체결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이거래를 지속 추적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일자리 40만개 증가에도… 20대 이하만 5만6000개 '증발'

데이터처,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대 이하 일자리 비중 13.4% 하락
제조업서 2.8만개 줄어 감소분 절반
정보통신업서도 1.5만개 일자리 감소

60대 이상, 전체 증가분 68% 차지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일자리 확대



서울 시내에서 열린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AI 기업 매칭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사이 5만6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분의 절반은 제조업(-2만8000개)에서 보고됐다. 전 연령대 일자리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0.6%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40만 개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135만6000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만6000개(1.9%)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 11만1000개에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 올해 1분기 29만2000개에 이어 2분기 들어 더 확대됐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286만8000개로 1년 전 대비 5만6000개(1.9%)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0%에서 13.4%로 줄었다. 전체 나이대 중 일자리가 감소한 집단은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만 2만8000개 감소했다. 이어 정보통신업 -1만5000개, 보건·사회복지업 -1만1000개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은 전체 일자리가 16만1000개 늘어 산업별 증가 폭이 가장 컸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같은 산업에서도 연령에 따라 일자리 흐름이 달랐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일자리는 429만5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27만7000개(6.9%)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8%에 해당한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2만6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2만4000개, 제조업에서 2만1000개 각각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0대를 중심으로 돌봄·요양보호사 등 일자리가 늘어나며 보건·사회복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0대 일자리는 12만3000개(2.7%), 50대는 5만9000개(1.2%), 40대는 4000개(0.1%) 늘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22.9%로 가장 컸다. 이어 40대 21.8%, 30대 21.7%, 60대 이상 20.1%, 20대 이하 13.4%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가 16만1000개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만2000개, 보건업에서 3만9000개 늘었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는 6만7000개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도 전문 서비스업과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등을 중심으로 4만3000개 증가했다.

반면,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4000개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1만6000개 사라졌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3만9000개, 여성 일자리가 26만8000개 증가했다.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1만9000개, 숙박·음식업에서 4만2000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64만3000개로 73.2%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대체 일자리는 326만1000개로 15.3%였다. 기업체 생성 및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45만3000개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04만6000개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2035년 신규 택시 100% 전기차 전환 추진

기후부·국토부, 택시업계와 업무협약
긴 주행거리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커
급속충전시설 확충 등 전환 부담 완화

정부가 2035년까지 신규 도입되는 택시를 원칙적으로 100%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손을 잡았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택시 부문의 전동화를 앞당겨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택시 전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등록된 약 22만 9000대의 택시 가운데 전기택시는 약 3만 9000대(17%) 수준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만 5000대가 신규 등록된 점을 감안해,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대상 택시가 원칙적으로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택시 전동화는 일반 승용차 전환에 비해 감축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힌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택시 평균 주행거리는 일반 승용차 대비 개인택시 약 5.8배, 법인택시 약 7.3배에 이른다. 내연기관차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시민들이 친환경 모빌리티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 분담에 나선다. 기후부는 차고지 등 급속충전시설 확충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다각화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차 안전성 홍보에 힘쓴다. 국토부 역시 택시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간다.

택시업계는 전기차 현장 확산에 주력한다.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기택시에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인식을 높여 법인택시 전환을 선도하며, 개인택시 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방식 안내와 인식 제고로 개인택시 전환을 독려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완성하려면 전환 수요가 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 수요의 전동화를 조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기택시로의 전환은 국민께 더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드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판을 드넓히는 일"이라며 "높은 차량 가격과 긴 충전시간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 자체 개발 AI '파워북', 공공기관 확산

자체 개발 AI 타 기관 확산 첫 사례
에너지 넘어 SOC까지 확대 추진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자체 개발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업무지원 서비스 '파워북(PowerBook)'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통해 자체 개발 AI를 타 기관으로 옮긴 첫 사례다.

한전은 지난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 4개 공공기관과 '파워북' 공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과 전현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AI 소위원장,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재경부 주관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뒤, 올해 7월 협의체 에너지 분과 정기회의에서 파워북을 소개하고 수요 확인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

파워북은 한전 AI혁신단 산하 자체 개발 전담 조직인 FAST팀이 애자일(Agile) 방식으로 만든 업무지원 서비스다. 직원 개인 PC에 보관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문서 검색·분석, 핵심 내용 요약 및 질의응답, 보고서·PPT 작성 등을 돕는다.

한전은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별 유사 AI 중복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 AI 전환(AX)의 걸림돌로 꼽혀온 사내 자료 유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협의체 내 다른 분과까지 파워북 도입 수요를 넓혀 공공기관 AI 전환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사, 중·동부 유럽 물류거점 확보 나선다

크로아티아 리예카 물류센터 건립
2028년 개장… 국내 기업 수출입 지원

부산항만공사(BPA)가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배후단지에 중·동부 유럽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공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이투이로지스틱스솔루션과 크로아티아 리예카 물류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물류기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참여사들은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리예카항 배후 쿠쿨랴노보 산업단지 내 대지면적 1만7709㎡(5356평), 연면적 8919㎡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이후 현지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배후단지에 건립될 물류센터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리예카항은 아드리아해 북부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주요 항만으로, 중·동부 유럽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관문이다.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는 배터리·자동차 부품·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이 자리하고 있다. 리예카 물류센터는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수출입을 뒷받침하고, 현지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해외 물류센터 개발·운영 경험을, KIND는 해외투자 개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투이로지스틱스솔루션은 크로아티아 현지 물류사업 경험을 활용해 현지법인을 통한 출자와 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합작투자계약은 부산항만공사의 유럽 물류네트워크를 중·동부 유럽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K-방산 中企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방위산업진흥회와 수출 지원 협약
8200억 상생금융·시설투자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K-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방산 3사·시중은행과 손잡은 8200억 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과 해외 시설투자 금융 다각화 등 방산 분야 지원 폭도 넓힌다.

무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K-방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방산 시장 진입 지원, 공동 설명회 및 컨설팅 제공 등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무보는 방산 중소·중견 협력사를 겨냥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3사와 하나·우리·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을 맺고 중소·중견 협력사에 총 8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수출계약보증서 발급 지원을 넘어 해외 공장 설립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까지 금융 제공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K-방산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생태계의 허리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버려진 밤 껍질이 가죽으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17곳 육성

지역 문제, 사업 모델로 연결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 신청 가능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지역 현안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최근 제2차 충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보령 '발전노동자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17개사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등 기본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 구조 등 일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으로, 향후 요건을 보완하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령 발전노동자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운영과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자 직무 전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 9월 보령 지역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시범사업을 수주했으며, 현재 고용 인원 0명에서 내년 6명, 2029년 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성 '온기로'는 농촌 빈집 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기업이다. 지난 8월 설립해 홍성읍 오관리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지난달 17일 농촌민박시설 '온기로스테이 1호점'을 개장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에 지역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빈집 소유주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와 빈집 방치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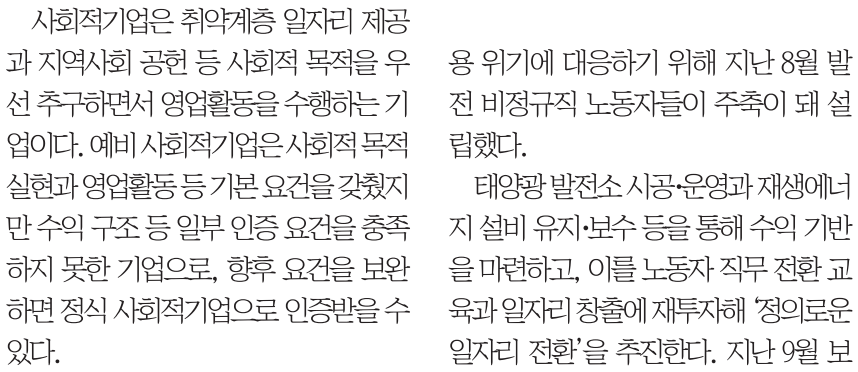
공주 '베일리'는 지역 특산물인 밤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껍질(율피)을 활용해 친환경 식물성 인조가죽 원단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특허 출원과 아마존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도 추진 중이다. 향후 원료 전처리와 생산·검수·포장 공정에 지역 취약계층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청양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 컨설팅, 유통·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도 보완 사항을 안내해 재도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필 충남도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고령화, 빈집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며 "각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KAI와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방산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천시

사천 우주항공·방산 육성에 1.5조 투입

사천시-산업부-경남도-진주시-KAI
전문 인력 양성하고 공급망 구축

경남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주항공·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KAI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첨단 우주항공·방산 분야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사천시는 23일 경남도청에서 산업통상부, 경남도, 진주시, KAI와 '우주항공·방산 첨단 산업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민간 항공기 개발 기술 확보와 항공부품 국산화,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도 추진한다.

사천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남도는 투자 전담창구 운영과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규제·인허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정부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과 연계해 동남권 핵심 성장엔진인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천(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업 AI 혁신 본격화

경남대·지역 산업기관 협력

경남대학교와 지역 산업지원기관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경남대 산학협력단은 23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산학융합원과 함께 구성한 제조AX산학혁신파크사업 추진단이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AX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이 생산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제조AX산학혁신파크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입주 기업들의 AI 전환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광주시, 팔당상수원 7개 시군 공동 대응

"규제 희생에 정당한 보상해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이 주민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3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용인특례시, 이천시 등 6개 시군과 함께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 시군 상생 협의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와 주민 지원 문제를 개별 시군 차원이 아닌 공동 현안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참여 시군들은 수질관리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오랜 기간 이어진 규제에 비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팔당상수원 관리 지역은 수도권 약 2천60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 보호 구역이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수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 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아 왔다.

문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역의 부담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8년 한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에서 제시된 지원 중심 정책과 수익자 부담 원칙, 지역의 자율적인 개발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7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 지원사업 개선, 수질오염총량제 등 과학적 수질관리 체계를 활용한 규제 합리화를 비롯한 6대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경북도, 무장애 관광에 국비 62억 확보

전국 최다 열린관광지 선정

경북도가 2027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국비 6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포항·경주 권역은 전국에서 한 권역을 뽑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에, 김천·의성·청송 관광지 9곳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지 접근성과 이동 편의, 정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북에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에 선정된 권역은 포항·경주가 처음이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전국 30곳 중 경북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포항·경주에는 2027년부터 3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을 투입한다. 포항역과 경주역을 중심으로 포항영일대·죽도시장·보경사 등과 경주 관광특구 시내·보문·불국지구를 잇는다.

휠체어 탑승 특장버스 2대와 리프트 미니밴 4대를 시간 단위 또는 종일 예약제로 운영하고 승하차 거점 10곳을 정비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박용선 시장, 산림환경대상 수상



박용선 포항시장(사진)이 23일 포항시산림조합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경북권역 자치부문 상을 받았다.

지역 여건에 맞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시민 생활권 녹지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8월 산림청장과 기북면 탑정리 항공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상황을 살피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청양군

'SNS 대상' 유튜브 최우수상

청양군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와 군민 중심의 소통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청양군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2026 올해의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군) 분야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SNS 대상'은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매체별 SNS 활용도와 콘텐츠 경쟁력, 대국민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청양(충남)=양대승 기자

순창군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영예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과 2025년 행안부 장관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앙부처 30개, 공공기관 67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를 중심으로 지휘부부터 실무자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창(전북)=정봉철 기자 jbc6746@

남양주시

신도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왕숙·왕숙2·진접2지구와 양정역세권 등 주요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자재. 장비.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현대건설 등 20개 시공사가 참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콘텐츠가 판매 창구… 유통업계, 크리에이터 커머스 판 키운다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줄이어
크리에이터·셀러 간 협업 확대
부정광고 대응 등 관리체계 과제

유통업계가 잇따라 어필리에이트(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은 플랫폼이나 광고주가 외부 제휴 파트너에게 상품 홍보를 맡기고, 이를 통해 발생한 구매 등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2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G마켓과 CJ온스타일 등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터와 셀러 간 협업을 확대하며 외부 판매 채널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어필리에이트 마켓팅 시장은 성장세다. 시장조사업체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Cognit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어필리에이트 마켓팅 시장 규모는 2021년 133억940만달러에서 올해 말 200억6759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33년에는 354억255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8.5%로 추산된다.

G마켓은 전날 크리에이터와 셀러를 연결하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G마켓 큐레이터'를 선보였다. 셀러가 홍보할 상품을 등록하면 크리에이터와 일반 회원이 SNS 등 외부 채널에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G마켓은 크리에이터와 셀러를 연결하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G마켓 큐레이터'를 선보였다. /G마켓

앞서 G마켓은 지난해 11월 론칭한 'G마켓 앰버서더'를 통해 1년간 50여 개 브랜드와 협업하고 2000여 건의 콘텐츠를 발행했다. 한 식품 브랜드는 앰버서더 콘텐츠 지원 이후 거래액(GMV)이 32배 증가한 바 있다.

CJ온스타일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넘어 크리에이터 커머스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달 '크리에이터 커머스 페스티벌 코리아(CCFK) 2026'에서 크리에이터 커머스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상품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판매, 물류, 고객서비스(CS)까지 일괄 지원하고 광고·어필리에이트 마케팅·공동구매·브랜드 사업·글로벌 진출 등 크리에이터의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크리에이터 매칭 플랫폼 '온트너(ONTNER)'를 론칭했다. 올해 크리에이터 커머스 취급고는 전년 대비 약 3.3배, 협업 크리에이터 수는 약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CJ온스타일은 오는 2030년까지 커머스 특화 크리에이터 10만명을 육성하고 크리에이터 커머스 취급고를 지난해 대비 3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 중인 곳들은 더 있다.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는 '쇼핑 커넥트', 카카오는 '선물하기 큐레이터' 등 상품 추천을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소비자의 상품 탐색 방식 변화가 있다. 소비자가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는 목적형 쇼핑에서 SNS 등 외부 채널의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발견하는 발견형 쇼핑으로 소비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브랜드와 셀러 입장에서도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팬덤을 활용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제휴 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이른바 '납치광고'다. 일부 광고업체가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해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필요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고 정부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 납치광고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으며 국회에서는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화면 전환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더마켓
홀리데이 쿠킹 클래스

'연말 홈파티' 콘셉트 기획

CJ제일제당이 공식 자사몰 CJ더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홀리데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응모 경쟁률 123:1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썸머 쿠킹 클래스'에 이어 이번에는 '연말 홈파티' 콘셉트로 기획했다.

클래스는 내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내 쿠킹 스튜디오 'CJ더키친'에서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회차별 응모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1'에 '뉴욕 장금이'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이연주 셰프가 강사로 나서며 메뉴는 애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3종 코스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참깨라면' 한정판 출시

오뚜기가 대표 스테디셀러 '참깨라면'의 크리스마스 한정판(사진)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참깨라면 용기와 컵 2종에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적용해 11월 말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참깨라면 특유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에 연말 분위기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한정판 패키지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활용하고, 지난 3월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선보인 스마일 계란 캐릭터에 산타 모자를 씌운 '참깨 산타' 디자인을 적용했다. /신원선 기자

엔제리너스
"시즌 메뉴 만나보세요"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음료 2종과 디저트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음료는 '윈터 애플 시나몬 뱅쇼'와 '크럼블토피넛 라떼'로 구성했다. 윈터 애플 시나몬 뱅쇼는 사과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시나몬 향을 더한 제품이다. 크럼블 토피넛 라떼는 견과류와 버터의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를 살리고 로투스 크럼블을 올려 바삭한 식감을 더했다.

디저트는 '크리스마스트리 레드벨벳'과 '벨지안 초콜릿 치아바타'를 준비했다. 크리스마스트리 레드벨벳은 레드벨벳 시트에 크림치즈를 층층이 넣은 케이크다. 벨지안 초콜릿 치아바타는 벨기에산 무설탕 초콜릿을 활용해 쌉싸름하고 달콤한 맛을 살렸다. /신원선 기자

식품업계, 겨울철 먹거리 경쟁… 라면·호떡 등 신제품 쏟아져

농심, '누들핏W' 2종 신규 출시
CJ제일제당, 비비고 제품군 확대
오뚜기, 붕어빵 등 새로운 맛 추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식품업계가 겨울철 먹거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외식 한 끼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따뜻한 국물 요리와 붕어빵·호떡 등 계절 간식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과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겨울철 국물요리와 간식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국물요리 시장에서는 진한 육수와 면의 식감을 살린 제품이 눈길을 끈다. 농심은 올겨울 국물 라면 시장에서 맛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열량 부담을 낮춘 제품을 선보인다. 23일 출시한 '누들핏W' 2종은 기존 누들핏 브랜드에 처음으로 넓적한 건면을 적용해 식감을 풍성하게 하고 국물이 면에 잘 배도록 설계했다. '누들핏 W 사천마라탕'은 진한 고기 육수에 산초 오일을 더했으며, '누들핏W 광동짬뽕'은 홍합과 멸치, 청양고추를 활용해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두 제품 모두 100kcal다.



누들핏W. /농심



얼큰 북엇국라면. /오뚜기



비비고 말차호떡. /CJ제일제당

오는 30일에는 신라면 출시 40주년 기념 한정판 '신라면 해물&어묵'도 출시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와 농심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신라면 특유의 매운맛에 어묵의 감칠맛을 더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는 전문점 수준의 국물 맛과 건강 요소를 앞세우고 있다.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윤나라 셰프와 협업해 선보인 비비고 황태국과 애호박찌개는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봉을 넘어섰다.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도 강화하고 있다. 비비고 저나트륨 한우사골곰탕은 자사 유사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을 50% 낮췄으며, 비비고 소고기듬뿍 미역국은 25% 줄였다.

대상은 청정원의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를 통해 외식 전문점에서 즐기던 국물 요리를 간편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오뚜기는 익숙한 한식 국물요리를 라면에 접목했다. 롯데마트·슈퍼와 공동 개발한 '굴미역국라면'은 국산 굴과 바지락, 홍합 등 해산물의 감칠맛을 미역국에 결합한 제품이다. G마켓과 공동 기획한 '얼큰 북엇국라면'은 기존 북엇국라면의 깊고 시원한 국물에 고춧가루를 더해 칼칼한 맛을 강화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과 호떡도 가정용 간편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붕어빵'의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단팥과 슈크림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유기농 말차 브랜드 슈퍼말차와 협업한 '비비고 말차 붕어빵'을 출시했다. 국내산 말차 원료를 활용한 크림과 국산 찹쌀가루를 사용했으며,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말차를 활용한 호떡 제품도 선보이며 한국식 겨울 간식 라인업을 넓혔다.

오뚜기는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을 통해 팥과 슈크림뿐 아니라 피자 등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초코와 말차 맛을 적용한 '쥬러스 미니붕어빵' 2종을 출시했다. SPC삼립은 삼립호빵을 중심으로 겨울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단팥과 야채 등 기존 제품에 다양한 맛을 추가하며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홈플러스, 내일부터 온라인 배송 전면 중단

예약주문 자동 취소… 재개시점 미정

홈플러스가 상품 수급 차질로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배송을 전면 중단한다. 직원들의 급여가 3개월째 체불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정부와 여당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품 수급 차질로 부득이하게 11월 26일부터 온라인 배송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26일 이후 배송이 예약된 주문은 자동 취소되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된다. 배송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직원들의 급여 체불도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네 차례에 걸친 8월분 급여 지급을 완료했다. 현재 9~11월분 급여와 명절 상여금이 체불된 상태다.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앙위원회 결의대회를 열고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도 이날부터 오전 출근시간대 민주당사 앞 1인 시위를 재개한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민주당 측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전날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면담했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날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큐라클, 차세대 항암제 '승부수'
혈관질환 넘어 신약 영토 확장

맵틱스·피노바이오와 '맞손'
각 사 플랫폼 결합 후보물질 도출
'MT-40X' 등에 ADC 적용 탐색
임상 순항 중 성장동력 확보 포석
3분기 누적 매출 91억, 적자 72%↓



(왼쪽부터)큐라클 유재현 대표, 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 이남경 맵틱스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큐라클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큐라클이 고부가가치 항암 분야로 보폭을 넓힌다. 그간 기술이전으로 입증한 사업화 역량에 항체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을 결합해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이전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큐라클은 항체 신약개발 기업 맵틱스, 항체·약물 접합체(ADC) 전문기업 피노바이오와 항체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3사는 각 사가 보유한 핵심 플랫폼과 신약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맵틱스의 항체 발굴·엔지니어링 역량과 피노바이오의 링커·페이로드 플랫폼, 큐라클의 신약개발·임상 및 사업화 노하우를 하나로 묶어 차세대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3사는 큐라클과 맵틱스가 초기 연구를 진행 중인 항암 후보항체 'MT-40X' 등을 대상으로 ADC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표적과 작용 기전에 따라 단일항체, 이중·다중항체,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최적의 치료 접근법을 비교 검증해 최적 후보물질을 선별할 계획이다.

큐라클은 검증된 파트너십에 전문 플랫폼을 더해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큐라클과 맵틱스는 이미 지난 5월 공동개발한 망막질환 이중항체 'MT-103'을 미국 메멘토 메디신에 최대 10억 7775만 달러(한화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하며 협력 성과를 낸 바 있다. 여기에 2022년 셀트리온과의 옵션 계약, 지난 10월 스위스 알렌티스 테라퓨틱스와의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피노바이오의 '피노-ADC' 플랫폼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큐라클의 이번 행보는 주력 파이프라인 'CU06', 'CU01' 등이 후기 임상에 진입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CU06은 경구용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후보물질로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2b상시험계획을 신청했다. 임상 2a상은 시력 개선 폭이 컸던 저시력 환자군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경구용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CU01 역시 국내 임상 2b상에서 1차 평가지표인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고 지난 6월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추가 기술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번 3사 협약은 초기 협력 단계인 만큼 향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개발 과제와 추진 일정은 후속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한 본계약 체결 및 실제 후보물질 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큐라클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확장과 함께 실적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큐라클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지난 5월 성사된 MT-103 기술이전 선급금 61억원이 3분기 누적 기술이전수익으로 반영된 데다, 지난해 6월 신사업으로 추가한 원료의약품 레바미피드 유통 부문에서 30억원의 상품매출이 발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33억원으로 전년 동기 118억원 대비 약 72% 줄었다.

큐라클 관계자는 "기존 항체 파이프라인에 우수한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접목해 후보물질별 최적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무신사, 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증획득

현지 사업 정책 지원 받을 수 있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 중인 (왼쪽부터)주중밍(朱忠明) 상하이시 시장과 박대형 무신사 차이나 법인장. /무신사

무신사 차이나가 중국 상하이시로부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증을 획득하며 중국 사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무신사 차이나는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시가 개최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증은 상하이시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상하이시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규모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부여한다. 이에 따라 무신사 차이나는 자금 운용과 수출입 통관 절차, 인재 유치,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현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신사는 중국을 주요 글로벌 시장 중 하나로 삼고 현지 조직과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며 국내 패션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과 현지 소비자 접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항저우와 선전까지 진출 지역을 넓히며 현재 중국에서 무신사 스탠다드 5개점과 무신사 스토어 2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상하이시 쉬후이구 정부와 국내 패션 브랜드 초청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 패션 산업의 교류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국내 패션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바이오에피스, 3명 승진 인사 단행

정병인 부사장, 이규범·최소영 상무


정병인 부사장 / 이규범 상무 / 최소영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원칙에 따라 부사장 1명, 상무 2인 등 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탁월한 업적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탁했다는 평가다.

우선 임상의학본부 RA(Regulatory Affairs)팀장으로는 정병인 부사장을 선임했다. 약사 출신의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의 인허가 전략을 수립해 제품의 적기 출시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규범 상무는 AX/PI팀 데이터(Data)거버넌스그룹장을 맡는다. 이 상무는 제약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IT 전문가로, 신설 법인 및 전사 주요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본부 BA(BioAnalysis)팀장을 맡은 최소영 상무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검체 분석까지 아우르는 바이오분석 전문가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과 신약 개발 분석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성장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바탕으로,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더욱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근본적인 관리로 두피·모발도 저속노화"

LG생활건강 '엘라스틴'
싱글즈와 직장인 대상 뷰티 토크
'싱글즈 오피스 클리닉' 성료
수티컬즈 제품·거꾸로 샴푸법 소개


행사 참가자가 엘라스틴 수티컬즈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헤어 코스메틱 브랜드 엘라스틴이 얼굴 피부에만 집중되던 저속노화를 두피와 모발에 적용한다. 엘라스틴은 지난 23일 2030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싱글즈'와 함께 서울 강남구 더북컴퍼니 사옥에서 직장인 대상 뷰티 토크 '싱글즈 오피스 클리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직장인 참여자, 성형외과 전문의, 뷰티 에디터 등 30여 명이 참석해 두피와 모발 고민을 나눴다. 연사로 나선 김진오 뉴헤어모발성형외과 대표원장은 두피 탄력 관리가 전반적인 얼굴 항노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두피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 전문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탄력 있는 모발에서 비롯되는 스타일링 팁을 전수해 호응을 얻었다. 엘라스티은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관리하는 신제품 '엘라스틴 수티컬즈' 제품군과 신개념 홈뷰티 '거꾸로 샴푸법'을 소개했다.

수티컬즈 제품군은 블루 펩타이드, PDRN, NMN, 재조합 콜라겐 등을 엘라스틴이 독자 배합한 '블루 펩타이드 부스터 샷'을 처방한 고효능 제품들이다. 단백질 영양공급 특허 기술도 적용해 유효성분 지속력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인체적용시험에서 샴푸 단독 사용 대비 단백질 밀착력을 2배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거꾸로 샴푸법은 샴푸 전 0단계에서 헤어 마스크를 먼저 도포해 유효성분으로 모발을 코팅한 뒤 샴푸로 세정하고 다시 헤어 마스크로 마무리하는 3단계 방식이다. 주 2~3회 활용만으로도 집에서 살롱 수준의 탄력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엘라스틴 브랜드 관계자는 "'헤어 롱제비티'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두피와 모발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며 헤어 안티에이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S샵, 사내 AX 혁신 프로그램 성료

지난 8월부터 '악셀 AI 레이싱' 진행
직원 178명 참여·94개 과제 구현

GS샵 사내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프로그램에 직원 178명이 참여해 94개의 업무 혁신 과제를 구현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GS샵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내 AX 혁신 프로그램 'AX:CEL AI Racing(악셀 AI 레이싱, 이하 AX:CEL)'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X:CEL은 'AX(AI Transformation)'와 'Accelerate(가속하다)'를 결합한 명칭으로 AI를 활용해 업무 혁신을 가속한다는 의미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딩 등 개발 전문성이 없는 현업 직원들이 직접 업무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AI를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거나 실제 작동하는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기획자(MD), 방송제작자(PD), 마케팅 등 다양한 현업 부서에서 178명의 직원이 참여해 113개 과제를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94개를 실제 구현했다. 참가자들은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판매·고객·방송 데이터를 연결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방송 및 상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는 등 홈쇼핑 업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GS샵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발굴한 과제의 실제 업무 적용과 조직 내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AI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AX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이 가족, 무술만큼 웃음도 세다!

눈앞에서 터지는 리얼 액션,
쉴 틈 없이 꽂히는 코믹 펀치!



점프

2024. 10. 01 - **OPEN RUN** | 명보아트홀 B3 **점프 전용극장**

예매: **NOL티켓, 티켓링크, 네이버** | 문의: **02-722-3995** | **www.hijump.co.kr**



KB국민은행, K-방산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KB국민은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K-방산 수출 공급망 강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황태부 디엔엠항공 대표이사,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 윤용환 KB국민은행 영남영업추진그룹 부행장, 최만림 경상남도 혁신성장부지사. /KB국민은행



신한금융, 지속가능성보고서상 7년 연속 수상

신한금융그룹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명예의 전당 헌정에 이어 통산 11번째 수상이다. 이은하 신한금융 SDGs 기획팀장(왼쪽)과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동아제약

SNS 유튜브 최우수상 수상

동아제약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고민 상담형 유튜브 콘텐츠로 소셜미디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동아제약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무해한 제작소'가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무해한 제작소'는 동아제약이 운영하는 유튜브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건강 고민과 불안을 다룬다. '해로움이 없다(無害)'는 뜻과 고민을 '무조건 해결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제목에 담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JW이종호재단, 장애인 미술작가 자립 돕는다

JW중외제약 공익법인 JW이종호재단이 갤러리 전시 제안부터 공정한 작품 판매 계약까지 실제 미술시장 진입 노하우를 전수하며 장애인 미술작가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JW이종호재단은 지난 21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JW사옥에서 장애인 미술작가의 미술시장 진출과 경력 관리를 돕기 위한 '경력설계 실전 특강'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JW이종호재단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비전 공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비전과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에서 '2026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 비전·성장 이룸 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교직원과 지역 관계기관 및 타 시도 교육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운영 방향을 공유한다. '당신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인 김민섭 작가가 '다정함,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주제로 강연하고, 실천 사례를 담은 영상 '2026 서울 학맞통 발자국'도 상영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SKT 'AI 케어', 1661건 긴급 구조… 사회공헌상 수상

'시슐랭 스타' 최종 10선에 선정
고립 중장년층 안부 확인 등 지원
민관 협력형 돌봄 모델 인정 받아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도엽 SK텔레콤 GC센터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시슐랭 스타 어워즈'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AI 케어(AI Care)가 '2026 시슐랭 스타' 최종 10선에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슐랭 스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미슐랭 가이드의 형식을 결합한 대국민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캠페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가 후원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AI 케어' 서비스는 시슐랭 스타에 접수된 113개 프로그램 가운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슐랭 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해 본선 후보 20개에 포함됐다. 이어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 대국민 투표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선에 이름을 올렸다. 심사 기준은 ▲진정성 ▲실행력 ▲차별성 ▲파급력 ▲지속성이다.

'AI 케어'는 AI 스피커와 AI 전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과 고립된 중장년 가구의 일상을 돌보는 서비스다. 2019년 4월 시작했다. 현재 ▲안부 확인 ▲복약 알림 ▲말벗 ▲인지훈련(두뇌톡톡) ▲긴급구조 연계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AI 케어 이용 현황은 2026년 11월 기준 전국 4만1000가구다. 긴급 SOS 대응 체계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용자가 호흡곤란이나 낙상 등 응급 상황에서 AI 스피커에 "아리아, 살려줘"라고 말하면 관제센터가 이를 확인해 119에 출동을 요청한다. 이를 통한 긴급 구조 건수는 1661건이다.

'AI 케어'는 SKT의 AI·통신 기술에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SK쉴더스 ▲전국 지자체·복지기관의 역할이 더해진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복지 현장의 인력 부담을 기술로 덜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를 미리 살피는 예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왔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김병근, 방산 부품 국산화 '국무총리 표창'

〈엠앤씨솔루션 대표〉

국내 방위산업 기술 자립 기여



김병근 엠앤씨솔루션 대표이사(오른쪽)와 최연우 산업통상부 대변인이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엠앤씨솔루션

엠앤씨솔루션은 김병근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김병근 대표는 방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에 기여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엠앤씨솔루션은 유압·전기 기반 정밀제어 기술을 보유한 방산 부품 기업이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자체 연구개발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방산 부품의 국산화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에 핵심 구동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방산에서 쌓은 정밀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발사체와 위성용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이번 표창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품질관리, 해외 고객 지원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임직원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써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K-방산의 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아모레퍼시픽재단, 2026 장원특강 연다

오는 27일·내달 11일 개최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인공지능(AI)가 정답을 쏟아내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유하고 질문하는 힘'을 되찾기 위해 인문학 연구자 6인과 함께 대중 강연의 장을 연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오는 27일과 12월 1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홀에서 '2026장원(莊源)특강'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AI 대전환의 시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6인이 연사로 나선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중진공·부산銀, 정책자금 투명성 강화

정책자금 사전검증 시스템 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산은행과 손잡고 정책자금 투명성을 높인다.

중진공은 지난 23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사에서 '정책자금 사전검증 시스템'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은행이 기업, 우리, 경남, 광주, IM(대구), 토스뱅크, 케이뱅크, 농협, 국민까지 포함해 총 10곳으로 늘었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지원한 자금이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체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에 '정책자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표시멘트, 김장 나눔으로 온정

삼척블루파워·남부발전 등 동참

삼표시멘트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삼표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사)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사랑을 버무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삼표시멘트를 비롯해 삼척블루파워, 한국남부발전, 쌍용C&E, 대성MDI 등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이 후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정선군·태백시·영월군·삼척시 및 4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정선·태백·영월·삼척 김장 나눔 한마당'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함께했으며, 삼표시멘트 임직원 10여명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이 정성껏 버무린 총 1200포기 분량의 김장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동절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인 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부사장 승진 △권기덕△김민성△김용훈△박장용△박충신△송상철△안재용△양희철△이상엽△이용훈△이윤경△이종석△이지훈△이현우△전진규△정성엽△조익현△최병철△최재혁△마띠유아포테커(Mathieu Apothecker) ◇상무 승진 △구동한△김봉수△김지훈△김태섭△김태영△김홍규△박대우△방은숙△배일택△부좌영△송준용△송형철△양효순△오승재△오하나△우용하△윤난경△이경훈△이동우△이상원△이윤수△이재훈△이정우△이철목△임봉근△정민용△정창규△조용선△최선영△최수민△최제민△최주원△최준헌△한재필△허노익△허련△형승용△황승훈 ◇펠로우(Fellow) 선임 △김윤선 ◇마스터(Master) 선임 △이인철△정석영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사장 승진 △강동우△김경태△김명오△김시우△노승남△류효겸△박진표△박태훈△박현근△서성기△송윤종△송태중△윤석호△이병진△이호△장세정△최경수△최진필△하경수 ◇상무 승진 △강동원△길민선△김성은△김재섭△김효중△문종근△문창성△문혜경△박상수△박승현△박현아△박희철△송주영△이기조△이길성△이동복△이상희△이성주△이응규△이인영△이충선△이현수△임미정△임호철△임흥순△장근호△장종각△장채명△정주연△조태훈△최명환△최정현△최진걸△최하영△하찬효△한상욱△한상호△한정훈△한희구△황이태 ◇펠로우(Fellow) 선임 △박종철 ◇마스터(Master) 선임 △구길호△김희중△배기호△백상엽△변경은△신동민△오진호△이남현△장동민△정일우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 △김덕헌 △송하정 △안기완 △이성준 △최지훈 ◇상무 승진 △고윤덕 △김혜성 △박영석 △신혜란 △이경남 △이승규 △이승훈 △정일옥 △조형욱 ◇마스터 선임 △김종인 △이선희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곽준호 △곽형찬 △박철민 △이근목 △황치원 ◇상무 승진 △강대경 △강동헌 △박명준 △신경아 △안재용 △이승호 △최대철 △황동호 ◇마스터 선임 △김포철 △조원우

◆삼성SDI ◇부사장 승진 △강용해 △이경근 △정태영 △정훈 ◇상무 승진 △김일학 △박백성 △박찬갑 △유희은 △정찬윤 △지세진 ◇Master 승진 △김민한

◆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사장 △신사업부문 심재철 ◇부문장·실장 △전략사업부문 현열석 △개인사업부문 송민호 ◇상무 △법인2사업본부 이민우 △충청호남사업본부 박정호 △부산사업본부 김승철 △법인3사업본부 이홍근 △투자기획본부 조석구 ◇담당 △리스크관리본부 민승환 △강남사업본부 유범석 △경인사업본부 김도완 △영업교육본부 류기현 △IT지원본부 윤원기 △보상기획본부 배영석 △전략2사업본부 조준식 △대구사업본부 신광준 △미주사업본부 이태훈 △법인1사업본부 김인기 △전략1사업본부 류영기 △경영관리본부 이정민 △재경본부 정병록 〈임원 이동〉 ◇상무 △아시아사업본부 김강욱 △AX혁신본부 안복남 △GA마케팅본부 정광수 △강북사업본부 신수호 △자동차보상본부 신배식 ◇담당 △장기보상본부 한정일

◆DB생명 〈임원 승진〉 ◇상무 △준법감시본부장 강석진 ◇담당 △제휴사업본부장 남용국 〈임원 이동〉 ◇담당 △IT본부장 김재명

가을등산, 왜 내려올 때 무릎이 더 아플까?



이 준 민 박사의

건강운동 가이드

단풍철 산을 오를 때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 그런데 정작 무릎 통증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왜 내려올 때 더 아픈 걸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구조 건수의 12.4%가 10~11월에 집중됐고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다. 아름다운 단풍만큼이나 내려오는 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다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 오르막에서는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느라 숨이 차고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힘을 낸다. 내리막에서는 중력에 끌려 내려가는 몸이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다리가 걸음마다 '브레이크'를 건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힘을 낸다. 계단을 내려갈 때 허벅지가 버티는 것과 비슷하다. 무릎을 굽힌 채 체중을 받아야 하므로 무릎뼈 뒤쪽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이미 오르막에서 지친 상태라면 발을 디디는 동작이 거칠어지고 균형을 잃기도 쉽다.

그렇다고 내리막을 걸으면 무릎이 반드시 손상된다는 뜻은 아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처럼 관절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은 일상에도 많다. 문제는 내 체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사와 거리를 갑자기 선택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서둘러 내려올 때다.

하산할 때 가장 먼저 조절할 것은 속도와 보폭이다.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내려가거나 높은 턱에서 뛰어내리면 한 걸음마다 몸을 멈추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급한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평소보다 보폭을 조금 줄여보자. 발을 몸에서 너무 멀리 내딛거나 쿵 내려놓지 말고 짧고 안정적으로 디딘다. 허벅지가 떨리거나 발을 정확히 놓기 어려워지면 안전한 곳에서 잠시 쉬는 편이 낫다.

배낭도 가볍게 꾸리는 편이 좋다. 물과 보온 의류 등 필요한 것은 챙기되 불필요한 짐은 줄이고,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정상에 오를 체력뿐 아니라 하산할 체력과 시간까지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등산 스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틱을 사용했을 때 내리막에서 무릎 주변의 힘이 줄었다. 두 팔로 지면을 함께 지지하면 하체에 집중되던 부담을 나누고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스틱이 모든 무릎 통증과 부상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관련 연구는 참가자가 적고 일정한 경사로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실제 산에서 부상을 예방하는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지에서 길이와 사용법을 익히고, 스틱을 쓴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빠르게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최근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노르딕 워킹'도 스틱을 사용하지만 등산 스틱과 목적이 다르다. 등산 스틱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몸을 지지하는 데 주로 쓰인다면 노르딕 워킹은 평지나 완만한 길에서 스틱을 뒤로 밀며 상체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걷기 운동이다.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보다 팔과 상체를 더 사용해 운동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반 걷기보다 무릎 부담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장비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체력이다. 평소 짧고 완만한 코스부터 걷고 스쿼트나 낮은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으로 다리를 준비한다. 이런 운동이 부상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하산할 때 필요한 근육과 동작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산행 뒤 허벅지가 가볍게 뻐근한 것은 흔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릎이 붓거나 절뚝거릴 정도로 아프고 날카로운 통증이나 무릎이 빠질 듯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무리해서 다음 산행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등산은 정상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안전하게 내려왔을 때 끝난다. 내리막에서 속도를 낮추고 보폭을 줄이며, 피로해지기 전에 쉬는 것이 안전한 하산의 시작이다.

/스포츠운동의학 박사·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외래교수

실손 전환, 철회권도 보호해야



기자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보험사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꾼 가입자에게 철회 조건이 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알려야 한다.

지난 23일 시작된 전환 할인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실손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던 가입자에게 분명 반가운 선택지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1·2세대 실손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 대상이다. 같은 보험사의 5세대로 옮기면 3년간 5세대 보장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0대 여성 사례를 보면 1세대 월 보험료는 17만6982원이다. 5세대로 바꾸면 할인 적용 시 2만1620원, 미적용 시 4만3241원이다. 실제 4년 차 보험료는 그때의 요율과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4년 차 보험료는 그때의 요율과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년 할인을 모두 받은 뒤 할인 없는 보험료를 낼 때면 전환 철회 기한은 이미 지나 있다.

다만 전환 할인 제도는 숙려기간이 끝난 뒤 최대 6개월의 철회 기간을 두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중 첫 3개월 안에만 철회를 허용한다.

만약 숙려기간이 끝난 지 넉 달째, 보장 대상인 비급여 검사를 받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봤을때, 예상보다 자기부담이 커 기존 계약으로 돌아가려 해도, 검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전환을 철회할 수 없다.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다.

생명보험협회는 전환에 앞서 기존 실손과 5세대의 보험료와 보장을 비교해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협회 안내문에는 철회 조건도 담겨 있다. 전환 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철회 기한을 따로 알리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뒤 부당한 전환 권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두 차례 재안내의 시점과 내용을 보험사 공통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사후 점검에서는 보험사가 철회 조건이 바뀌기 전에 계약자에게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는 숙려기간이 끝난 뒤 3개월을 앞두고 철회 조건이 바뀌는 날짜와 그 이후 적용될 조건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한 조건과 마지막 신청일,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해야 한다. 문자나 앱 알림에서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5일 (음 10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막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60년생** 금전운이 좋아 일이 잘 풀립니다. **72년생** 생활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사세요. **84년생** 외출하여 움직여야 운이 따르게 됩니다.

소 **49년생** 남의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침착히 행동하세요. **61년생** 권력이 다가 아닙니다. **73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가 없어 슬픕니다. **85년생** 오늘은 근신할 때 입니다.

호랑이 **50년생** 아직 운기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62년생** 기력이 돌아 오게됩니다. **74년생** 무리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86년생** 휴식은 훗날 큰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토끼 **51년생** 금전적인 거래는 모두 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63년생** 업종을 바꾸거나 전면적인 개혁, 확장은 불길합니다. **75년생** 잠시 쉬도록 하세요. **87년생** 애정운이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용 **52년생** 조상들의 지혜를 잘 되새겨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64년생** 밀려오는 업무에 너무 지쳐있습니다. **76년생**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88년생** 귀하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뱀 **53년생** 귀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65년생** 발전과 명예는 현재로써는 환상일 뿐입니다. **77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9년생** 금전적인 손실에 대비하세요.

말 **54년생** 여행을 통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66년생** 아침부터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78년생** 뜻밖의 횡재를 맞게 됩니다. **90년생** 하루 일과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양 **55년생**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7년생** 돈을 만지게 되는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엉뚱하게 돈에 욕심이 생기면 길하지 못합니다. **91년생** 매사에 겸손하세요.

원숭이 **56년생**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68년생** 의외의 수입으로 오만해 질 수 있습니다. **80년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세요. **92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이 생기는 날입니다.

닭 **57년생** 오늘만큼은 고집을 버리세요. **69년생**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81년생** 과소비를 할 수 있으나 알아채지 못합니다. **93년생** 이성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흐뭇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개 **58년생** 어떤 일이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70년생** 정신만 차리면 잘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82년생** 좀 더 기다려 보세요. **94년생** 느낌이 좋은 사람과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겠습니다. **71년생** 도전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83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하겠으나 잘 극복합니다. **95년생** 이 시기에 여행을 떠나면 길하지 못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가도벌괵, 길 빌리기

살다 보면 정면으로 부딪쳐서는 도저히 넘어서기 힘겨운 상대를 만나는 때가 있다. 밀어붙이려니 손해가 커지고, 정면으로 맞서려니 자신의 약점만 드러난다. 이럴 때는 상대를 직접 공략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우회로를 택해보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중국 고대 병법 36계에는 이러한 계책이 있다. 가도벌괵, 길을 빌려 괵나라를 친다는 뜻인데, 단순히 남의 길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협조를 얻어 목표에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전략이다. 가도벌괵 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협조를 통해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협조를 얻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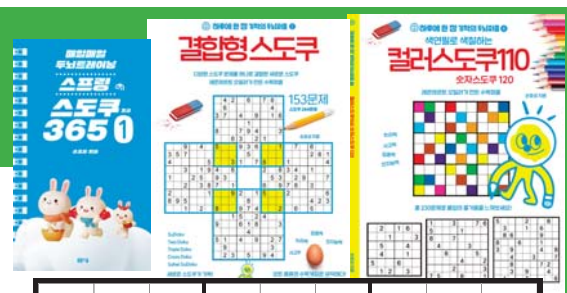
먼저 상대방을 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은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발표에 약하고 경쟁 상대인 동료는 발표를 잘하지만,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자. 서로 경쟁자로만 생각하면 각자 약점을 감추느라 바쁘겠지만, 역할을 나누면 두 사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권한과 경험을 빌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자신의 직급이 낮다면, 불합리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봐야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그런 때는 개선안을 만들어 상사의 승인을 얻는 게 방법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사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과 권한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가도벌괵은 남의 길을 빌리는 기술이지만, 그 속에는 길을 읽는 안목이 담겨 있다.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길이 없을 때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과 부족한 것을 살피고,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힘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7			8		1		
6				1		3		9
			4					5
4			8			7		
8								6
		7			9			8
7					5			
1		6		7				3
		5		6			2	7

2		3						9
			3					
			7	1	2			5
		2	4		9	8	6	
		8				2		
	7	4	8		3	9		
7			9	3	6			
					7			
3						5		4

9	3	5	4	6	1	8	2	7
1	4	6	8	7	2	9	5	3
7	2	8	9	3	5	6	4	1
5	1	7	6	2	9	4	3	8
8	9	2	3	4	7	5	1	6
4	6	3	8	5	1	7	9	2
3	8	1	4	9	6	2	7	5
6	5	4	7	1	2	3	8	9
2	7	9	5	8	3	1	6	4

3	9	6	2	8	1	5	7	4
8	2	1	5	4	7	3	9	6
7	4	5	9	3	6	1	2	8
6	7	4	8	2	3	9	5	1
9	3	8	1	6	5	2	4	7
1	5	2	4	7	9	8	6	3
4	8	9	7	1	2	6	3	5
5	6	7	3	9	8	4	1	2
2	1	3	6	5	4	7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내신까지 'AI 커닝' 비상… 교육부, '수능급 감독' 도입

금속탐지기 검사·와이파이 차단
적발 시 당일 모든 과목 0점 처리
교원·학부모 "2학기 기말 대책 마련"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27학년도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경희대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넘어 중·고교 내신 평가로 번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감독교사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와 수험생들도 공정한 시험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신에도 수능 수준의 감독·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고충 제보 결과'를 발표하고, "수능·내신 등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원단체 감독 부담…"전면 손질을"**

전교조는 "AI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감독교사의 업무와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일부 감독교사는 새벽 4시에 출근해 12시간 넘게 근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 업무를 하루 2교시 이내로 제한하고 교시당 감독 인력을 3명으로 늘리는 한편, 감독 수당 현실화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국무총리 직속 '국가시험보안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전문 인력과 장비, 법령·예산을 갖춘 전담 기구를 두고 수능뿐 아니라 대학 편입시험과 중·고교 내신 평가에도 'AI 부정행위 제로존'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 **학부모·학생도 '내신 공정성' 촉구**

학교 현장에서도 내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 지역 학부모·교육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 정기시험의 AI·첨단기기 부정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2학기 기말고사부터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독 인력과 예산 지원 및 관련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수험생 단체인 '2027 수능 대책 요구 연대'는 지난 23일 "학교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에서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공통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다음 달 입시 공정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예고했다.

◆ **교육청들, '금속탐지기'로 대응**

시도교육청들이 내신 부정행위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3 학교 239곳 중 200곳이 23~27일 시험을 치르고 있어, 우선 금속탐지기 활용을 도입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 전수검사를 추진한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속탐지기를 최대한 확보해 학교에 지원하고, 검사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수능에 사용한 금속탐지기 324대를 도내 학교에 배포했다.

◆ **교육부 "적발 땐 당일 전 과목 0점"**

교육부도 24일 '중등학교 내신평가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2학기 기말고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중학교도 이를 참고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수거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특히 입실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당일 학교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복도 감독관은 통신 신호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징계 수위도 높인다. 부정행위 적발 시 기존 해당 과목만 0점 처리하던 기준을 바꿔 당일 모든 과목을 0점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금속탐지기 도입 등 긴급 조치가 우선 시행됐지만, 일회성 대응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 변화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예방·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신도시 어린이집, 영아반만 운영 가능

교육부, 유아반 운영 일시 중단 허용
국공립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확대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반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유아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아반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등 취약보육 4개 유형 중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시간제보육이 추가돼 총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제공하면 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 수요 조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예외다. 이 기준은 시행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새로 선정하거나 재선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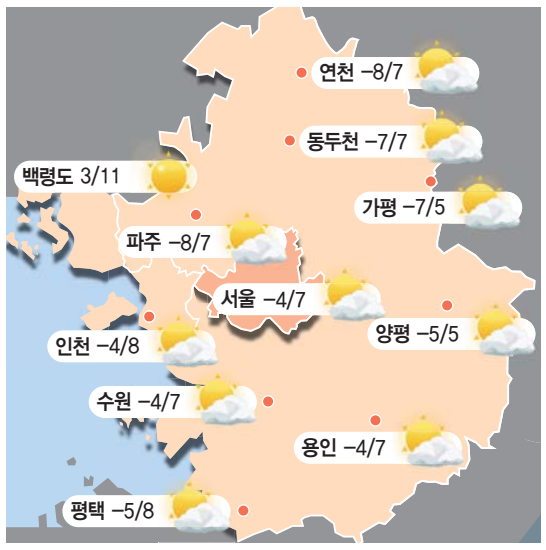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2 | 해짐 / 17:16

11월
25일(水)
음력 : 10월 17일

수도권 날씨
-4 ~ 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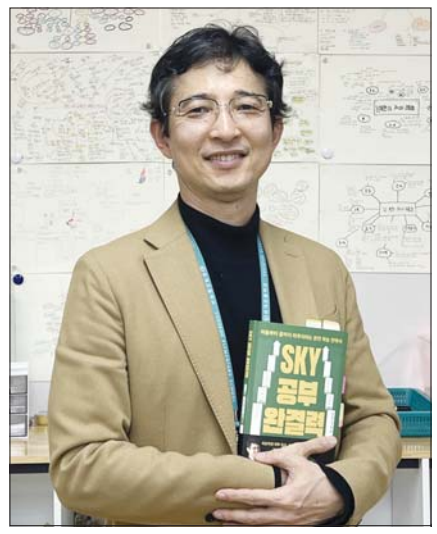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겨울방학 동안 한 가지 습관 만들어보길"

인터뷰

김 선 호 교사

공부 경쟁력 출발점 '끝까지 해내는 힘'
자기 수준 맞는 분량 끝내는 경험 축적
작은 성취 반복되면 학습 지속력 생겨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유석초등학교에서 만난 'SKY 공부 완결력' 저자 김선호 교사. /김수정 기자

"완결력의 핵심은 작은 것을 확실히 끝맺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김선호 교사의 생각은 다르다. 20년 가까이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 교사는 최근 'SKY 공부 완결력'을 펴냈다. 학년말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 교사는 공부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끝까지 해내는 힘'을 강조한다.

〈메트로신문〉은 책의 저자인 김 교사를 만나 공부 완결력에 주목한 이유와 초등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원칙 등을 들어봤다.

◆ **'많이'보다 '끝까지'**

김 교사가 완결력에 주목한 계기는 교실에서 만난 한 학생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은 이 학생은 학업과 학생자치, 발표회 준비를 병행하면서도 하루 30분 남짓 악기 연습을 이어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악보를 매일 네 마디씩 연습해 6년간 쌓아온 결과였다. 김 교사는 적은 분량을 꾸준히 완수한 경험이 연주 실력뿐 아니라 공부와 다른 활동에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힘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그가 말하는 완결력은 오래 앉아 있거나 많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다. 시작점과 마침점을 정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분량을 끝내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 하루에 정한 목표를 마치는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서 학습을 이어갈 힘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 **선행 대신 '반 발짝'**

김 교사는 학생의 현재 수준보다 반 발짝 앞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학의 '비계 설정'처럼 해낼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5학년 학생이라도 4학년의 개념이 부족하다면 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학년이나 주변 진도에 맞추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스스로 마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처음부터 공부를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보다 하루 분량을 정하고 실천 여부를 확인하며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

◆ **AI 다룰 힘도 '독서'에서**

김 교사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학습 습관은 독서다. 김 교사는 "최대한 빨리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책을 통해 쌓은 어휘와 배경지식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긴 글의 흐름을 따라가는 바탕이 된다는 게 교직 생활에서 얻은 관찰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는 중요하다. AI에 무엇을 질문하고 답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용자의 어휘력과 배경지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완결하는 습관이 지속되려면 학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독서나 한자 교육 등을 담임교사 재량에만 맡기기보다 학교가 지속할 활동을 정해 초등 6년 동안 이어가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입시 너머 '자기효능감'**

김 교사가 말하는 완결력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다. 작은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경험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그 태도를 공부 밖으로 확장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책에는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완결력의 심리적 기반과 과목별 학습 습관, 부모의 역할 등을 담았다.

겨울방학을 앞둔 학부모에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기보다 한 가지 습관을 정해 꾸준히 이어가라고 조언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방학 동안 학습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김수정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홍콩 방송사, 에이티즈 안무 표절 의혹…"바꾸려는 정성조차 없다"

▲佛마크롱, 대선 5개월 앞두고 '재정 황금률' 헌법 명문화 검토 /사진 뉴시스

▲EU, 일본산 전기차 우대 대상서 제외…日정부 "포함해 달라" 총력

▲젠슨 황, 엔비디아 복귀에도 내달 1일 하원 청문회 출석 예정

▲美 의회, 젠슨 황 복귀에 초당적 비판…"국가 안보 위협 해명해야"

▲美, '젠슨 황 불륜 상대' 설립한 메가스피드 제재…엔비디아 AI칩 수출 차단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2호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콘텐츠가 판매창구로 크리에이터 커머스

L1

큐라클 차세대 항암제 승부수

L2



제품·서비스부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AIUP 학습플랫폼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의 'AIUP 학습플랫폼'이 제품·서비스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AIUP 학습플랫폼'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외부 서비스 가입 없이 한 곳에서 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여러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수강생은 영업·인사·마케팅 등 직무별 과제를 수행해 업무에 쓸 결과물을 만들고 AI 튜터와 현업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다.

제품·서비스부문 | 행정안전부장관상

(주)엔시드 NS·FMMS

엔시드의 'NS-FMMS'가 제품·서비스 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NS-FMMS'는 도로·생활안전용 CCTV 장비를 담는 함체의 온도·습도 이상, 충격, 비정상 개폐를 감지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 관리자는 지도에서 장비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가 발생하면 현장 방문 없이 전원을 제어해 장비를 다시 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함체를 열고 닫을 수도 있다.

한계 초월한 기술로 글로벌 AI 이끌 '혁신의 주역'



제 4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이 25일 서울 서초구 메타빌드 빌딩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메트로미디어와 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 등이 해마다 주관하는 '글로벌 ACX 초월대상'은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SW·AI 제품·서비스, 혁신적인 AI 활용 사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하는 시상사업이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특히 최근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AI 분야의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수상한다. 〈편집자주〉

제품·서비스부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주)유신테크 AI 도시통합에너지절감·환경제어시스템

유신테크의 'AI 도시통합에너지절감 및 환경제어시스템'이 제품·서비스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건물의 전력·냉난방·조명·환경설비를 연계해 최대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미세먼지와 온도에 따라 필요한 구역의 설비만 제어한다는 게 특징이다. 유신테크는 건물 절전제어 등 관련 특허 4건을 등록했으며, 에너지 수요 분석과 통합관제 기능을 고도화해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서비스부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메타빌드(주) LLaMON AX

메타빌드의 'LLaMON AX'가 제품·서비스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AI 에이전트의 개발부터 실행·관리·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문서에서 텍스트·표·이미지를 추출해 검색과 답변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코딩 없이 업무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설계·테스트·배포할 수 있다. MCP·A2A 기반으로 외부 시스템이나 다른 에이전트와 연결되며, 실행·운영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부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가온플랫폼(주) AI기반 지능형운전상태·고장예측진단시스템

가온플랫폼의 'AI기반 지능형운전상태 및 고장예측진단시스템'이 제품·서비스 부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발전설비의 센서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준다. 여러 설비에서 발생한 경보 데이터를 모아 통계 분석을 제공하며, 운영자는 분석 결과를 설비 운전과 정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서비스부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주)더존비즈온 ONE AI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제품·서비스 부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그룹웨어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자연어 지시로 전표 입력, 근태 신청, 경비 결재 등을 처리한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7800여개 기업이 'ONE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망 접속이 제한된 환경을 위한 내부구축형 'ONE AI PE'는 서울시 행정지원 AI 에이전트 사업에 공급됐다.

제품·서비스부문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주) 에어팩(AIRPACK)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는 AI 랜딩테크 솔루션 에어팩(AIRPACK)이 제품·서비스 부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금융 특화 AI 에이전트로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운영까지 통합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복잡한 여신 업무의 계획과 실행을 자동화하며,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예측해 의사 결정을 고도화 한다.

제품·서비스부문 |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주)토스랩 잔디(JANDI)

토스랩의 AI 협업 플랫폼 잔디(JANDI)가 제품·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메신저 기반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검색증강생성(RAG)을 통한 사내 자료 답변 등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정보보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보안 인증인 ISO 27001을 갖췄으며 현재 42만 개 이상의 팀이 사용 중이다.

제품·서비스부문 | 전자신문 사장상

마드라스체크(주) Flow(flow AI·Repattern)

마드라스체크의 AI 올인원 플랫폼 '플로우(Flow)'로 제품·서비스 부문 전자신문사 사장상을 받았다. 이 플랫폼은 국내 최초로 챗GPT·클로드 등 공식 앱에서 동시 등록됐으며, AI 대화창에서 프로젝트 상황 정리 등을 회사의 업무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한다. 현재 전 세계 55개국, 50만여 팀이 활용하고 있으며, 망 분리가 필요한 규제 산업에도 60건 이상 공급했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주식회사 씨앤테크 재정지원설비 사후관리 관제시스템

씨앤테크는 AI 활용우수사례부문에서 '재정지원설비 사후관리 관제시스템'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국고 지원 설비의 가동 상태와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사물인터넷(IoT)으로 24시간 수집하고, 하이브리드 AI와 거대언어모델(LLM) 관제 에이전트가 위험징후를 탐지한다. 안전작업 지수를 산출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공한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아라소프트(주) 지식·제조데이터 융합 보고·자동화 AX 도입

아라소프트는 '아라오피스 기반의 지식·제조데이터 융합 보고·자동화 AX 도입'으로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국산 웹오피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제조 기업의 보고서 초안 작성과 교정, 요약을 자동화했다. 불확실한 내용은 걸러내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도록 설계해 신뢰성을 높였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 메트로경제신문사장상

한국자산관리공사 AI기반 맞춤형 위험성평가 솔루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I기반 맞춤형 위험성평가 솔루션'으로 AI활용 우수사례 부문 메트로경제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민간기업 시엑스알이 개발한 AI 기술을 국유재산 공사 현장·용역 등 27곳에 적용해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했다. 지속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안전관리 데이터를 37종에서 44종으로 확충했으며, 민간 우수 AI 기술을 실용적으로 활용해 공공부문 안전관리의 AI 전환을 선도했다.

인재 부문 | 한국SW·AX 총연합회장상

아이씨티웨이(주) 고중훈 이사



고중훈 아이씨티웨이 이사가 인재 부문 한국SW·AX총연합회장상을 받았다. 고중훈 이사(사진)는 비전언어모델(VLM)을 활용한 위험도 기반 선별관제 플랫폼 'SitionX' 개발과 사업화를 이끌었다. 이 플랫폼은 여러 CCTV 영상에서 위험 상황을 분석해 관제 우선순위를 가려내며, 성능검증에서 오탐을 약 90% 줄였다. 바이브컴퍼니 재직 시절에도 국가 R&D 과제와 공공기관 AI 사업을 맡아 수행했다.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Galaxy AI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